



## 한국 고대 새(鳥類) 관념의 변화

### – 신성한 새에서 현실의 새로

Changes in the Idea of Korean Ancient Birds – From the Holy Bird to the Reality Bird

---

**저자** 이장웅  
**(Authors)** Lee, Jang-woong

**출처** [한국고대사탐구 31](#), 2019.4, 327–379 (53 pages)  
**(Source)**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31](#), 2019.4, 327–379 (53 pages)

**발행처**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ublisher)**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007839>

**APA Style** 이장웅 (2019). 한국 고대 새(鳥類) 관념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31, 327–379.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8/31 16:4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한국 고대 새(鳥類) 관념의 변화

— 신성한 새에서 현실의 새로 —

이 장 응\*

- I. 들어가며
- II. 신화와 제사 의례에 나타난 새와 태양, 祖靈, 穀靈 관념
- III. 瑞像으로서의 새
- IV. 사냥과 관리 대상으로서의 새
- V. 새 관련 고고 유물의 부장 양상 변화를 통해 본 새 관념의 변화
- VI. 마무리

## 【국문초록】

한국 고대의 신화와 제사 의례 속에서 새(조류)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매개하거나 조상신과 연결되며,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장송 의례에 사용되거나, 穀靈神을 불러다 주는 매개체로 농경의례에 사용되면서 매우 신성시되었다. 그동안에는 이처럼 신성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새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길흉의 징조로 祥瑞 기록 속에 나타나는 새, 사냥과 관리 대상이면서 음식 재료로 나타나는 새 등에 대하여 각각 단편적으로 연구되었다. 본고는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들을 집성하고, 그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시기에 따른 새 관념의 차이가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鴨形土器와 호남 지역의 鳥形土器가 5·6세기에 들어서면서 쇠퇴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때까지 신화와 제사 의례 속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던 새 관념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 문헌 기록상에서는 이 시기 이후에 흰 평이나 참새 등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신기한 서상물로 여겨지거나 길흉의 징조로 파악되면서 추상적인 신화 속 관념보다는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점차 새가 신성한 의미보다는 신기한 동물로 인식되어 정원

\*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등에서 관리되고, 사냥 대상이나 음식물로서의 의미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새(鳥類) 관념, 鴨形土器, 鳥形土器, 儀器, 神話, 祭祀 儀禮, 高句麗, 百濟, 新羅, 木簡

## I. 들어가며

한국 고대 관념에서 새(조류)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하늘·태양과 시조에 대한 신화와 제사, 장송 의례, 농경 의례 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점점에 새가 매개되어 있는 것이다. 신화·제사 체계에서 대체로 祖靈은 남성, 穀靈은 여성으로 표현되면서 이들이 모두 새로 관념되고 있으므로, 天神과 地神(수신, 穀神) 사이에서 탄생한 시조 역시 자연스럽게 알로 관념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고대의 새(조류) 관념에 대한 연구는 신화 속에서 天神의 매개자이자 天上의 인도자이며 穀靈과 동일시되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sup>1)</sup> 한편, 문헌 기록을 이용한 동물 희생 분석,<sup>2)</sup> 음식 문화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sup>3)</sup> 동물 사육이나<sup>4)</sup> 정원 측면의 연구도 있다.<sup>5)</sup> 고고학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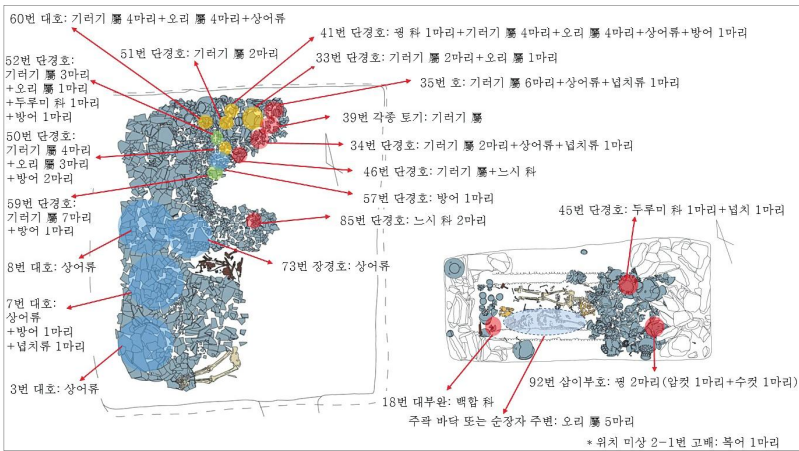
- 1) 권오영,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祭儀」 『역사와 현실』 32, 1999 ; 金東秀, 「神話を 통해본 古代人の 鳥類觀」 『日本學報』 44, 2000 ; 이양수, 「鳥靈信仰의 流入과 展開」 『영혼의 전달자- 새, 풍요, 숭배』, 국립김해박물관, 2004.
- 2) 박중환, 「문헌자료를 통해 본 百濟 祭祀의 動物犧牲」 『百濟論叢』 9, 2010.
- 3) 權珠賢, 「加耶人の 生活文化- 食文化를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 권주현, 「통일신라시대의 食文化 연구」 『韓國古代史研究』 68, 2012.
- 4) 金榮官, 「삼국시대 동물원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 13, 2008 ; 李俊貞, 「한반도 선사·고대 動物 飼育의 역사와 그 의미」 『농업의 고고학』, 사회평론, 2013.
- 5) 장인성, 「고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백제 원지」 『百濟文化』 56, 2017.

로는 고분에서 출토된 동물에 대하여 장송 의례와 관련시킨 연구가 있었으며,<sup>6)</sup> 제사 유적의 동물 희생 관련 고고 자료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sup>7)</sup>

조류를 靈物로 신성시한 것은 王을 중심으로 한 정치 행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에서 聖君의 출현과 함께 수반된다는 瑞祥說은 전국시대와 秦을 거쳐 前漢 초기에 와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데, 한국의 서상설도 이러한 중국의 서상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가 있다.<sup>8)</sup> 그리고 이러한 서상과 吉凶 관념에서도 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최근에는 경산 임당 고분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 유존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는데,<sup>9)</sup> 조류의 부장이 압도적으로 많음이 드러났다. 특히 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러기, 오리, 두루미, 느시, 고니 등 여섯 종의 조류가 확인되었다. 주변에서 쉽게 포획할 수 있는 텃새인 꿩은 하나의 토기에 70마리(조영 EIII-2호 부곽 41번 단경호), 20마리(임당 7B호 부곽 E3N7), 19마리(조영 EIII-8호 주곽 128번 호) 등 대량으로 부장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야생의 겨울 철새이므로 조금씩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묘에 부장되고 있었다.<sup>10)</sup>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새(조류)가 고분에 부장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고대인들이 새에 대해 가졌을 관념과 제사 의례에서의 의미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 6) 金東淑, 「新羅·伽倻 墳墓의 祭儀遺構와 遺物에 관한 研究」 『嶺南考古學』 30, 2002 ; 李盛周, 「貯藏祭祀와 盛饌祭祀－목곽묘의 토기부장을 통해 본 음식물 봉헌과 그 의미」 『嶺南考古學』 70, 2014 ; 김용성, 고분으로 본 신라의 장송의례와 그 변혁」 『중앙고고연구』 15, 2014.
- 7) 박중환, 「백제권역 동물희생 관련 고고자료의 성격」 『百濟文化』 47, 2012 ; 조대섭, 「청주 봉산리 삼국시대 토광묘 출토 꿩뼈의 연구」 『고고학』 16-2, 2017.
- 8) 李熙德,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혜안, 1999 ; 이희덕, 『高麗時代 天文思想과 五行說 研究』, 一潮閣, 2000.
- 9) 고은별·이준정·김대욱,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 - 포유류·조류』, 영남대학교박물관, 2017.
- 10) 고은별, 「임당 고총 동물부장 연구－조류 부장 양상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106, 2018.



경산 임당 조영 태-2호 주·부곽의 조류와 어류 부장 양상(고은별, 2018)

고분에서 출토된 동물 뼈는 출토 지점에 따라 대체로 ① 매장주체부 내부, ② 매장 주체부 주변, ③ 연도, ④ 봉토 내부, ⑤ 주구, ⑥ 독립매납유구의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송 의례의 단계마다 다른 의미의 의례가 행해지면서 그 결과물이 각각의 지점에 안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이에 따라서 부장된 동물이 가지는 의미도 망자를 위한 부장품일 가능성, 동물 희생 의례의 결과일 가능성, 장송 의례의 한 과정으로 참석자들이 공동식사[共食]를 한 결과물일 가능성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한국 고대의 새(조류) 관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화와 제사와 관련하여 신성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새, 길흉의 징조로 나타나는 새, 사냥과 관리 대상이면서 음식 재료로 나타나는 새 등에 대하여 각각 단편적으로 연구된 감이 있다. 본고는 한국 고대의 새 관념과 관련된 문헌 자료들을

11) 李俊貞, 「한반도 선사·고대 動物 飼育의 역사와 그 의미」 『농업의 고고학』, 사회평론, 2013.

12) 이준정, 「꿩 대신 닭?-고분 부장 동물유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考古學으로 본 古朝鮮(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韓國考古學會, 2017.

집성해 본다는 데에 1차 목적을 두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들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시기에 따라 새 관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부각시켜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의 새(조류) 관념을 신화와 제사 속에 나타나는 태양과의 연관이나 穀靈 및 祖靈 관념을 지닌 새, 신이한 瑞祥 기록 속의 새, 사냥과 관리 대상으로서의 새를 나누어 살피고, 발굴을 통해 나타난 실제 고고 자료를 함께 살피면서 새 관념의 변화를 부각하나마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II. 신화와 제사 의례에 나타난 새와 태양, 祖靈, 穀靈 관념

### 1. 부여계(고구려, 백제) 건국신화에 나타난 새 관념

- A-1. ① 漢 神雀 3年(BC 59) 壬戌에 天帝가 太子를 보내 부여왕의 옛 도읍에 내려와 놀았는데, 이름이 解慕漱였다.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五龍車를 탔고, 따르는 사람 1백여 인은 모두 흰 고니(白鵠)를 탔다. 채색 구름은 위에 뜨고 음악 소리는 구름 속에서 울렸다. 熊心山에 머물렀다가 10여 일이 지나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烏羽冠을 쓰고 허리에는 龍光劍을 찼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물면 곧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에서 天王郎이라 일컬었다. ... ② 河伯이, “왕이 天帝의 아들이라면 무슨神通하고 이상한 재주가 있는가?” 하니, 왕이, “무엇이든지 시험하여 보소서.”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서 잉어로 화하여 물결을 따라 노니 왕이 수달로 화하여 잡았고, 하백이 또 사슴으로 화하여 달아나니 왕이 승냥이로 화하여 쫓았고, 하백이 꿩으로 화하니 왕이 매로 화하였다. ... ③ 하백이 그 딸에게 크게 노하여, “네가 내 훈계를 따르지 않아서 마침내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였다.” 하고 죄우를 시켜 딸의 입을 움아 잡아당기어 입술의 길이가 석 자나 되게

하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優渤水 가운데로 추방하였다. 우발은 못 이름인데 지금 太白山 남쪽에 있다. 漁師 強力扶鄒가 고하기를, “근자에 魚梁 속의 고기를 도둑질해 가는 것이 있는데 무슨 짐승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 그물로 끌어내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그물을 만들어 당겨서 돌에 얹아 있는 여자를 얻었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 말을 못하므로 그 입술을 세 번 잘라내게 한 뒤에야 말을 하였다. 왕이 천제 아들의 妃인 것을 알고 別宮에 두었더니 그 여자의 품안에 해가 비치자 이어 임신하여 神雀 4년 계해년 여름 4월에 朱蒙을 낳았는데 우는 소리가 매우 크고 골상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처음 낳을 때에 좌편 겨드랑이로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五升 정도였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 ④ 주몽이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어미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고 오곡 종자를 싸서 보냈다. 주몽이 살아서 이별하는 마음이 애절하여 그 보리 종자를 잊었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에서 쉬는데 비둘기 한 쌍(雙鳩)이 모여들었다. 주몽이, “아마도 神母께서 보리 종자를 보내신 것이리라.” 하고,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떨어뜨렸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종자를 얻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뺐으니 다시 소생하여 날아갔다. ... ⑤ 서쪽을 순행하다가 시슴 한 마리를 얻었는데 蟹原에 거꾸로 달아매고 저주하기를, “하늘이 만일 비를 내려 沸流王의 도읍을 표몰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이 곤란을 면하러거든 내가 하늘에 호소하라.” 하였다. 그 시슴이 슬피 울어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 장마비가 이레를 퍼부어 松讓의 도읍을 표몰시켰다. 松讓王이 갈대 밧줄로 흐르는 물을 횡단하여 오리와 말(鴨馬)을 닳고 백성들도 모두 그 밧줄을 잡았다. 주몽이 채찍으로 물을 긷자 물이 곧 줄어들었다. 6월에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 한다.<sup>13)</sup>

13) 『東國李相國集』卷3, 古律詩 東明王篇 所引『舊三國史』, “① 漢神雀三年壬戌歲, 天帝遣太子降遊扶余王古都, 號解慕漱, 從天而下,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騎白鶴, 彩雲浮於上, 音樂動雲中, 止熊心山, 經十餘日始下, 首戴烏羽之冠, 腰帶龍光之劍, 朝則聽事, 暮即升天, 世謂之天王郎. ... ② 河伯曰, 王是天帝之子, 有何神異? 王曰, 唯在所試, 於是, 河伯於庭前水, 化爲鯉, 隨浪而游, 王化爲獺而捕之. 河伯又化爲鹿而走, 王化爲豺逐之, 河伯化爲雉, 王化爲鷹擊之. ... ③

- A-2. 大荒之中에 산이 있는데 이름이 孽搖顛羝이다. 산 위에 扶木(扶桑)이 있는데, 기둥이 삼백 리이고, 그 잎은 芥(겨자)와 같다. 거기에 계곡이 있는데 溫源谷이라고 부른다. 湯谷 위에 扶木이 있는데, 하나의 해가 도착하면 다른 하나의 해가 나간다. 모두 까마귀에 실려서 오고간다.<sup>14)</sup>
- A-3. 殷契의 어머니는 簡狄이다. 有娥氏의 딸이고, 帝嚳의 次妃이다. 세 사람이 목욕하러 가다가 玄鳥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간적이 그것을 삼켰는데, 이로 인하여 임신하여 契를 낳았다.<sup>15)</sup>
- A-4. 탈해가 말하기를 “그러면 術法으로 겨루어 보겠는가?”라고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변해서 매가 되니 왕은 변해서 독수리가 되었고, 또 탈해가 변해서 참새가 되니 왕은 변해서 새매가 되었다. 이때에 조금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자 왕도 역시 전 모양이 되었다.<sup>16)</sup>
- A-5. 주몽은 이에 烏引·烏遶 등 두 사람과 함께 부여를 버리고 동남쪽으로 도망하였다. ... 머리에는 折風을 쓰니 그 모양이 弃과 흡사하였으며, 모

河伯大怒, 其女曰, 汝不從我訓, 終欲我門, 令左右絞挽女口, 其唇吻長三尺, 唯與奴婢二人, 貶於優渤水中, 優渤澤名, 今在太伯山南, 漁師強力扶鄒告曰, 近有盜梁中魚而將去者, 未知何獸也. 王乃使魚師以網引之, 其網破裂, 更造鐵網引之, 始得一女, 坐石而出, 其女唇長不能言, 令三截其唇乃言, 王知天帝子妃, 以別宮置之, 其女懷中日曜, 因以有娠, 神雀四年癸亥歲夏四月, 生朱蒙. 啼聲甚偉, 骨表英奇, 初生左腋生一卵, 大如五升許. 王怪之曰, 人生鳥卵, 可爲不祥. ... ④ 朱蒙臨別, 不忍睽違, 其母曰, 汝勿以一母爲念, 乃裹五穀種以送之. 朱蒙自切生別之心, 忘其麥子, 朱蒙息大樹之下, 有雙鳩來集. 朱蒙曰, 應是神母使送麥子, 乃引弓射之, 一矢俱舉, 開喉得麥子, 以水噴鳩, 更蘇而飛去云云. ... ⑤ 西狩獲白鹿, 倒懸於蟹原, 呪曰, 天若不雨而漂沒沸流王都者, 我固不汝放矣, 欲免斯難, 汝能訴天, 其鹿哀鳴, 聲徹于天, 霖雨七日, 漂沒松讓都, 王以葦索橫流, 乘鴨馬, 百姓皆執其索, 朱蒙以鞭畫水, 水即減. 六月, 松讓舉國來降云云.”

- 14) 『山海經』 大荒東經, “大荒之中, 有山名曰孽搖顛羝, 上有扶木, 柱三百里, 其葉如芥, 有谷曰溫源谷, 湯谷上有扶木, 一日方至, 一日方出, 皆載于鳥.”
- 15) 『史記』 卷3, 殷本紀, “殷契, 母曰簡狄, 有娥氏之女, 爲帝嚳次妃, 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 因孕生契.”
- 16) 『三國遺事』 卷2, 紀異2, 駕洛國記, “解云, 若爾可爭其術. 王曰, 可也. 俄頃之間解化爲鷹, 王化爲鷲又解化爲雀王化爲鷓, 于此際也寸陰未移, 解還本身王亦復然.”

서리에 새의 깃(鳥羽)을 꽂는데 귀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sup>17)</sup>

- A-6. 주몽이 이에 烏伊·摩離·陝父 등 세 사람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淹淲水에 이르렀다.<sup>18)</sup>
- A-7. 왕이 다시 두 여자를 취하여 후실로 삼았다. 하나는 禾姬로 鵲川人의 딸이었고, 또 하나는 雉姬로 漢人의 딸이었다. ... 치희가 부끄럽고 분하여 도망쳐 돌아갔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말을 채찍질하여 그를 따라갔으나 치희는 노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문득 나무 아래에서 쉬는데 꾀꼬리(黃鳥)가 날아와 모여드는 것을 보고 감탄하여 노래하기를, “펄펄 나는 꾀꼬리(黃鳥)는 암수 서로 의지하는데, 외로운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하였다.<sup>19)</sup>
- A-8. 왕이 箕山 들에서 사냥하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양 거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 그를 조정애 등용하여 羽氏 성을 주고 왕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였다.<sup>20)</sup>
- A-9.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烏干·馬黎 등 열 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sup>21)</sup>

A-1은 이규보의 「東明王篇」에 인용된 『舊三國史』의 내용으로, 고구려 건국신화의 신성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원형 자료로 보고 있다. A-1 ①에서 해모수의 신격은 天神이면서 太陽神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五龍車를 타고 까마귀 깃털 관을 쓰고 용광검을 찼으며, 아침에 정사를 보고

17)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朱蒙乃與烏引烏達等二人, 棄夫餘, 東南走 ...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18)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元年(BC37), “朱蒙乃與烏伊摩離陝父等三人爲友, 行至淹淲水.”

19)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3年(BC17) 冬十月, “王更娶二女以繼室, 一曰禾姬, 鵲川人之女也. 一曰雉姬, 漢人之女也. ... 雉姬愆恨, 亡歸, 王聞之, 策馬追之, 雉姬怒不還, 王嘗息樹下, 見黃鳥飛集, 乃感而歌曰,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20)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4年(5) 秋9月, “王田于箕山之野, 得異人 兩腋有羽, 登之朝, 賜姓羽氏, 俾尙王女.”

21)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元年(BC18), “沸流溫祚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

저녁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바로 태양을 묘사한 것이다.<sup>22)</sup> 태양과 까마귀의 연결은 A-2의 『山海經』에서 해가 까마귀에 실려 오고 간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楚辭』 天問의 “羿는 어찌 태양을 쏘았고 까마귀는 어찌 깃털을 떨어뜨렸나[羿焉彈日 烏焉解羽]”는 기록과, 『淮南子』 精神訓의 “태양 안에 세발 달린 까마귀(駿鳥)가 있고, 달 안에 두꺼비(蟾蜍)가 있다[日中有駿鳥 而月中有蟾蜍]”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A-1 ②에서는 해모수와 하백이 변신 경쟁을 하면서 꿩과 매가 등장하는데, A-4의 가락국 건국신화에서도 수로와 탈해의 변신 경쟁에서 모두 새로 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A-1 ③에서 유화는 물새의 자태를 하고 있으면서 새의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있어 자신이 새임을 나타내고 있다.<sup>23)</sup> 고구려 시조 주몽은 A-1 ④에서 보리 종자의 운반자로 등장하고 있는 비둘기 한 쌍을 보며 神母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몽 못지않은 시조적 속성을 가지면서 그를 계승한 2대 왕인 유리는<sup>24)</sup> A-7에서 黃鳥 한 쌍을 보며 禾姬(곡물)와 雉姬(새)를 생각하고 있다. 곡물은 새의 알처럼 관념되고 마치 새가 알을 품어 부화하듯 곡물이 발아하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으므로, 새는 穀靈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고구려의 역대 왕들은 木樨(神竿)의 아래에 서서 祖靈이기도 한 穀母가 보내는 새를 맞이하는 제의 과정을 통해 시조왕의 위력을 체현하고 穀靈 자체로도 인식된다는 견해가 있다.<sup>25)</sup>

한편, 태양의 자손이 나라를 세우려고 이동할 때에 동행한 신하의 이름에 ‘鳥’가 붙어 있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북부여에서 남하할 때에 A-5의 『魏書』에서는 烏引과 烏遑가, A-6의 『삼국사

22)李志映, 『韓國神話의 神格 由來에 관한 研究』, 태학사, 1995, 17~35쪽.

23)李恩奉, 『韓國古代宗教思想－天神·地神·人神의 構造』, 集文堂, 1984, 183쪽.

24)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墓－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1981.

25)권오영, 앞의 논문, 1999, 98~104쪽.

기』에서는 烏伊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백제의 비류와 온조가 졸본부여(고구려)에서 남하할 때에 A-9의 『삼국사기』에서는 烏干·馬黎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신라의 17관등 중 제15관등이 大鳥, 제16관등이 小鳥인 것도 참고할 만하다. 이들은 태양신인 왕을 따라다니던 신하이면서 ‘鳥’가 붙어 있는 까마귀 사람이라는 점에서, 태양의 정령이자 태양신의 使者로 日者 혹은 日官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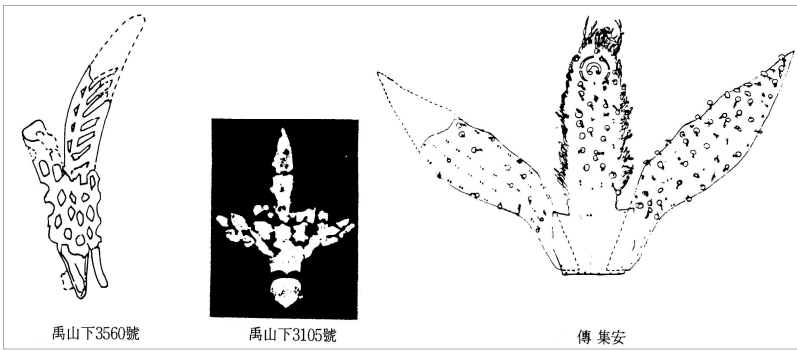
- (1면) 「大鳥知郎足下万拜白之」
- (2면)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个」
- (3면) 「牒垂賜教在之後事者命盡」
- (4면) 「使內」

□小舍前敬呼白遣 居生小鳥送□□  
官二言之 此二確 官言在

신라 '大鳥' 관등이 보이는  
월성 해자 2호 목간

신라 '小鳥' 관등이 보이는  
월성 해자 신2호 목간

26) 金東秀, 「神話を 통해본 古代人の 鳥類觀」 『日本學報』 44, 2000, 491쪽.



고구려의 鳥翼形 冠飾

A-5 『魏書』에는 고구려에서 折風에 鳥羽를 장식한 鳥羽冠과 관련된 기록이 있으며, 실제 개마중 행렬도의 인물도와, 집안 우산하 3560호 및 3105호묘 출토품, 요령성 박물관의 전 집안 출토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등의 鳥翼形 冠飾이 발견되었다.<sup>27)</sup> A-8은 고구려 유리왕이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는 사람을 상서롭게 여겨 羽氏를 하사한 내용이다. 이들은 일종의 鳥裝을 하여 새 사람(鳥人)이 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2. 신라 건국신화에 나타난 새 관념

B-1. ① 이 6부의 시조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 ② 이때에 높은 데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楊山 아래 蘿井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거기를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또는 푸른 빛 큰 알이라고도 한다]가 있고 말은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뿜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개 보니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가 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東泉[東泉寺는 詞腦野 북쪽에

27) 신대곤, 「羽毛附冠飾의 始末」 『고고학지』 8, 1997.

있대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조리 춤을 추며 天地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빛났다. 따라서 이름을 赫居世王이라 하였다. ... ③ 이날 沙梁里 關英井[또는 娥利英井]이라고도 한대에서 鷄龍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부터 童女[혹은 용이 나타나 죽으매 그 배를 가르고 얻었다고도 한대를 낳으니 자색이 뛰어나게 고왔다. 그러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은지라 月城 北川에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으므로 그 川의 이름을 撥川이라 하였다. ... 처음에 왕이 鷄井에서 났으므로 혹은 일러서 鷄林國이라고도 하니 계룡이 상서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sup>28)</sup>

B-2. 당시 포구의 해변에 한 할멈이 있었으니 이름은 阿珍義先이라 하였는데, 이가 바로 혁거세왕 때 海尺의 母였다. 배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본시 이 바다 가운데에 바위가 없는데 어찌하여 까치가 모여서 울고 있는가?” 하고 배를 끌어당겨 살펴보니 까치가 배 위로 모여들고 배 안에 상자 하나가 있었다. 길이는 20자이고 넓이는 13자였다. 그 배를 끌어다가 나무 숲 밑에 매어두고 이것이 흉한 일인지 길한 일인지를 몰라 하늘을 향해 고하였다. 잠시 후 궤를 열어보니 단정히 생긴 사내아이가 있고, 또 일곱 가지 보물과 노비가 그 속에 가득하였다.<sup>29)</sup>

B-3. 瓠公이 밤에 月城 西里를 가는데 始林[또는 鳩林]의 가운데에 크고 밝은 빛이 있으며, 자색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에 뻗쳐 내려온 것을 보았다. 구름 속에 황금 상자가 있는데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빛은 상자로부터 나오며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다. 그대로 이것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친히 숲에 나가서 그 상자를 열어 보니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누워있

28) 『三國遺事』 卷1, 紀異1, 新羅始祖赫居世王, “① 此六部之祖, 似皆從天而降. ...

② 於時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檢之有一紫卵[一云青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 得童男形儀端美, 驚異之俗於東泉[東泉寺在詞腦野北],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 ... ③ 是日沙梁里關英井[一作娥利英井]邊, 有雞龍現, 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死, 而剖其腹得之] 姿容殊麗, 然而昏似雞鶩, 將浴於月城北川, 其鶩撥落因名其川曰撥川. ... 初王生於雞井故或云雞林國, 以其雞龍現瑞也.”

29) 『三國遺事』 卷1, 紀異1, 第四脫解王, “時浦邊有一媼名阿珍義先, 乃赫居王之海尺之母, 望之謂曰, 此海中元無石崙何因鵲集而鳴, 拏缸尋之, 鵲集一缸上缸中有一楨子, 長二十尺廣十三尺, 曳其船置於一樹林下, 而未知凶乎吉乎, 向天而誓爾俄而乃開見有端正男子, 并七寶奴婢滿載其中.”

다가 바로 일어났다. 이것은 마치 혁거세의 고사와 같으므로 그 아이 이름을 闕智라 하였다. 알지는 鄉言으로 小兒를 일컫는 말이다. 안고 궁으로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며 기뻐하면서 춤추고 뛰어 놀았다.<sup>30)</sup>

- B-4. 천축인은 신라를 矩矩吒嚳說羅라고 하는데 구구다는 雞를 말하고, 예설라는 貴를 말한다. 그 나라는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그 나라는 雞神을 공경하여 높이기 때문에 관에 깃을 올려서 장식한다”라고 한다.<sup>31)</sup>
- B-5. 癸未年(503) 9월 25일, 沙喙의 至都盧葛文王, 斯德智阿干支, 子宿智居伐干支와 喙의 尔夫智壹干支, 只心智居伐干支와 本彼の 頭腹智干支와 斯彼の 暮斯智干支, 이 7王等이 共論하여 敎示하였다. 〈「浦項 冷水里 新羅碑」〉
- B-6. 甲辰年(524) 正月 15日 喙部の 牟卽智寐錦王, 沙喙部の 徙夫智葛文王, 本波部の 巫夫智干支, 岑喙部の 美昕智干支 ... 〈「蔚珍 鳳坪里 新羅碑」〉.
- B-7. 그 邑이 안에 있는 것은 啄評이라 하고, 밖에 있는 것은 邑勒이라 하니, 중국의 郡縣과 같은 말이다. 國에는 6啄評과 52邑勒이 있다.<sup>32)</sup>

신라 건국신화에서 B-1 ① 6부의 시조들은 모두 天降하고 있으며, B-1 ② 혁거세는 楊山 아래 蘿井 옆에서 白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남긴 큰 알에서 태어났으니, 천강이 가능한 동물인 새(알)가 말과 함께 관념되고 있다. 고구려 건국신화인 A-1 ⑤에서도 松讓왕이 갈대 밧줄로 흐르는 물을 횡단하여 오리와 말(鴨馬)을 탔다고 하여 역시 새와 말이 함께 관념되고 있다.<sup>33)</sup>

B-1 ③ 알영은 입술이 닭의 부리처럼 생겼으며, 鷄龍에게서 나왔다. B-2 난생이면서 궀에 넣어져 도래할 때 鵠의 보호를 받은 탈해도 鵠의 자

30) 『三國遺事』 卷1, 紀異1, 金闕智脫解王代, “瓠公夜行月城西里, 見大光明於始林中[一作鳩林], 有紫雲從天垂地, 雲中有黃金橫, 掛於樹枝, 光自橫出, 亦有白雞鳴於樹下, 以狀聞於王, 駕幸其林開橫, 有童男臥而卽起, 如赫居世之故事, 故因其言以闕智名之, 闕智卽鄉言小兒之稱也, 抱載還闕鳥獸相隨喜躍踴躍.”

31) 『三國遺事』 卷4, 義解5, 歸竺諸師, “天竺人呼, 海東云矩矩吒嚳說羅, 矩矩吒言雞也. 嚳說羅言貴也. 彼土相傳云, 其國敬雞神而取尊, 故戴翎羽而表飾也.”

32) 『梁書』 卷54, 列傳48, 諸夷 新羅, “其邑在內曰啄評, 在外曰邑勒, 亦中國之言郡縣也. 國有六啄評, 五十二邑勒.”

33) 김길식, 「鴨馬形土器의 軌蹟」 『상형토기의 세계(丹豪文化研究12)』, 용인대학교 박물관, 2008.

손으로 관념되었을 것이며, B-3 흰 닭이 울고 있는 始林(鷄林, 鳩林)의 나뭇가지에 걸린 황금궤에서 나온 알지 역시 닭의 후손이다.<sup>34)</sup>



아프가니스탄 툴리아 테페 6호묘 출토 금관의 새 장식(1세기)      경주 서봉총 금관의 새 장식(5세기)



일본 후지노키 고분 금동관의 새 장식(6세기)

34) 권오영, 앞의 논문, 1999, 107~108쪽.

신라에서는 雞龍, 雞林, 雞井 등의 존재로 보아 닭이 중시되었으니, B4에서는 신라인들이 鷄神을 받들어 존경하여 그 깃털을 꽂아 장식한다는 天竺人の 견문도 전하고 있다. 신라 왕족은 鳥翼形冠飾과 결합된 관을 착용하였다. 신라의 경주 천마총이나 백제의 논산 육곡리 고분에서는 계란이 발견되었고,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 고분에서는 닭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sup>35)</sup>

B-5·6의 신라 6세기 초반 금석문에는 신라 6部 중 喙部, 沙喙部, 峯喙部에서 “喙(부리)”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B-7의 6喙評 기사에서 “喙(부리로 쪼다)”과 B-5·6의 “喙(부리)”는 의미가 통하고, “評”은 행정구획을 의미하므로, 6喙評을 6喙部(6부)로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신라 6부의 명칭도 새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새의 부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들”을 지칭하는 순수 우리말인 “부리”를 訓借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儒理尼師今 9년에 설정된 부 이름에서 喙部는 及梁部로, 沙喙部는 沙梁部로, 峯喙部는 漸梁部(牟梁部)로 나타나고 있는데,<sup>36)</sup> 여기의 “梁” 역시 “들”을 지칭하는 글자라는 점에서이다.<sup>37)</sup> 이 경우에도 “들”을 뜻하는 용어가 ‘새의 부리’를 뜻하는 용어와 같은 발음을 공유하면서 신라 6부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음은 주목된다.

### 3. 왕궁과 제사 의례에 나타난 새 관념

C-1. 가을 9월에 난새(鸞)가 王臺에 모였다. 겨울 11월에 왕이 扶尉獸에게 명하여 北沃沮를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城邑으로 삼았다.<sup>38)</sup>

35) 모기철, 「池山洞 44號古墳 出土 動物遺骸에 對한 考察」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高靈郡, 1979. 다만 이전까지 막연하게 닭뿔로 알려졌던 뼈들이 실은 꿩뼈일 가능성도 있다(고은별, 앞의 논문, 2018, 147쪽 주5).

36)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9年(32).

37) 전덕재, 『한국고대사회의 왕정인과 지방민』, 태학사, 2002, 97~100쪽.

38)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10年(BC28), “秋九月 鸞集於王臺 冬

- C-2. 가을 7월에 多勿侯 松讓의 딸을 받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9월에 서쪽으로 사냥을 나가 흰 노루를 잡았다. 겨울 10월에 神雀이 王庭에 모였다.<sup>39)</sup>
- C-3. 24년(220) 여름 4월에 이상한 새가 王庭에 모여들었다. 28년(224) 王孫然弗(동천왕)이 태어났다.<sup>40)</sup>
- C-4. 여름 4월에 왕이 新城[신성은 나라 동북의 큰 鎮이라고도 한다]에 가서 사냥하다가 흰 시슴을 잡았다. 가을 8월에 왕이 신성에서 돌아왔다. 9월에 神雀이 宮庭에 모였다.<sup>41)</sup>
- C-5. 가을 8월에 이상한 새가 王宮에 모였다. 겨울 10월에 왕이 蛇川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흰 노루를 잡았다.<sup>42)</sup>
- C-6. 2년(560) 봄 2월에 북제의 廢帝가 왕을 봉하여 使持節 領東夷校尉 遼東郡公 高句麗王으로 삼았다. 왕이 卒本으로 행차하여 始祖廟에 제사 지냈다. 3월에 왕이 졸본에서 돌아오면서 지나는 州와 郡의 감옥에 갇힌 죄수 중에서 두 가지 죄를 제외하고 모두 풀어주었다. 3년(561) 여름 4월에 이상한 새가 宮庭에 모였다.<sup>43)</sup>
- D-1. 봄 2월에 왕이 大壇을 설치하고 친히 天地에 제사를 지냈더니 이상한 새 다섯 마리가 와서 빙빙 돌며 날았다.<sup>44)</sup>
- D-2. 봄 정월에 南郊에서 天地에 제사를 지냈다. 왕이 친히 희생을 베풀었다.<sup>45)</sup>

十一月 王命扶尉獸 伐北沃沮滅之 以其地爲城邑。”

- 39)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年(BC18), “秋七月, 納多勿侯松讓之女爲妃. 九月, 西狩獲白獐. 冬十月, 神雀集王庭.”
- 40)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二十四年, 夏四月, 異鳥集于王庭. 二十八年, 王孫然弗生.”
- 41)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西川王 7年(276), “夏四月, 王如新城[或云新城國之東北大鎮也], 獵獲白鹿. 秋八月, 王至自新城. 九月, 神雀集宮庭.”
- 42)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2年(414), “秋八月, 異鳥集王宮. 冬十月, 王畋于蛇川之原, 獲白獐.”
- 43)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二年, 春二月, 北齊廢帝封王爲使持節 領東夷校尉遼東郡公高句麗王, 王幸卒本, 祀始祖廟. 三月, 王至自卒本, 所經州郡獄囚, 除二死, 皆原之. 三年, 夏四月, 異鳥集宮庭.”
- 44)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20年(2), “春二月, 王設大壇, 親祠天地, 異鳥五來翔.”
- 45)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比流王 10年(313), “春正月, 祀天地於南郊, 王親割牲.”

- D-3. 가을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南海의 村人이 合穎禾를 바쳤다. 겨울 10월에 왕이 제단을 만들어 天地에 제사를 지냈다.<sup>46)</sup>
- D-4. 겨울 10월에 왕이 牛鳴谷에서 사냥하면서 직접 사슴을 쏘아 맞혔다.<sup>47)</sup>
- D-5. 제8대 阿達羅王이 즉위한 4년(157) 丁酉에 동해의 바닷가에 延鳥郎과 細鳥女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가 바닷가에 나가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물고기 한 마리라고도 한다] 연오를 태우고 일본으로 가 버렸다. ...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광채를 잃었다. 日者가 나아가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지금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하였다. 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을 찾으니 延鳥가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입니다. 지금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하지만 나의 처가 짝 細絹가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것입니다.”라 하면서 이에 그 비단을 주었다. 사신이 돌아와서 아뢰자, 그 말대로 제사를 지낸 이후에 해와 달이 이전과 같이 되었다.<sup>48)</sup>
- D-6. 봄 2월에 친히 始祖廟에 제사지냈는데, 자주색 구름이 廟 위를 둥글게 돌렸고, 神雀이 廟庭에 모였다.<sup>49)</sup>
- D-7. 제21대 毗處王[또는 炤智王] 즉위 10년(488) 戊辰에 天泉亭에 거둥하였다. 이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 왕이 騎士에게 명하여 까마귀를 따르게 하여 남쪽의 避村[지금의 壤避寺村으로 南山의 동쪽 산록에 있다]에 이르렀는데,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어 이를 한참 살피다가 홀연히 까마귀가 간 곳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 日官이 나서서 말하기를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라고 하였다. ... 이로부터 나라의 풍습에 해마다 정월 上亥日·上子日·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조심히 하고

4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1年(489), “秋, 大有年, 國南海村人, 獻合穎禾. 冬十月, 王設壇 祭天地.”

47)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4年(492), “冬十月, 王獵牛鳴谷, 親射鹿.”

48) 『三國遺事』 卷1, 紀異1, 延鳥郎 細鳥女, “第八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東海濱有延鳥郎細鳥女夫婦而居, 一日延鳥歸海採藻忽有一巖[一云一魚]負歸日本, 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降在我國, 今去日本故致斯怪, 王遣使求二人, 延鳥曰, 我到此國天使然也. 今何歸乎? 雖然朕之妃有所織細絹,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絹,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然後, 日月如舊.”

4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3年(358), “春二月, 親祀始祖廟, 紫雲盤旋廟上, 神雀集於廟庭.”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15일을 烏忌日로 삼아 찰밥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까지 이를 행한다.<sup>50)</sup>

C군 기사는 고구려에서 난새(鸞), 神雀, 異鳥가 王臺, 王庭, 宮庭, 王宮에 나타난 기사이다. 이러한 새의 서상은 왕궁과 관련된 지역에 나타나면서, 북옥저 정벌, 왕비를 맞아들임, 왕의 행차 후 환궁 등 왕의 중요 행위와 관련된 기록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에서는 山上王 시기를 경계로 하여 이전의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왕위 계승 경향이 뚜렷해지는데, C-3 산상왕 24년의 異鳥를 이러한 왕권 강화와 관련된 서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51)</sup> 『삼국사기』에서는 이 24년 기사 바로 다음에 28년의 王孫 然弗(동천왕)이 태어난 기사를 배치하여, 이러한 왕권 상속이 새의 서상과 연관됨을 암시하고 있다.

D-1에서 백제 온조왕이 大壇을 쌓고 天地에 親祀할 때 날아온 異鳥 5마리는 하늘과 땅을 매개하여 인간이 신과 교통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금동대향로에 묘사된 5마리의 새를 연상케 한다. 백제에서는 D-2처럼 천지 제사에서 왕이 친히 희생을 베키도 했으며, 제사의 변화에 따라 사냥과 사슴 포획 기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D-4 동성왕 14년의 마지막 사슴 포획 기사를 끝으로 D-3 11년까지 이루어졌던 천지 제사가 사라지고 있음으로 보아, 사슴 포획과 천지 제사 사이의 연관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52)</sup> 이로 보아 조류보다는 포유류가 중요한 제사에 희생물로 올려졌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뒤에서 살필 주

50) 『三國遺事』 卷1, 紀異1, 射琴匣, “第二十一毗處王[一作炤智王], 卽位十年戊辰幸於天泉亭, 時有烏與鼠來鳴. … 王命騎士追之南至避村[今壤避寺村, 在南山東麓], 兩豬相鬪留連見之 忽失鳥所在. … 日官奏云, 二人者庶民也, 一人者王也. … 自爾國俗每正月上亥上子上午等日, 忌慎百事不敢動作, 以十五日爲烏忌之日, 以糯飯祭之, 至今行之.”

51) 신정훈,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 혜안, 2013, 61쪽.

52) 박중환, 앞의 논문, 2010, 257쪽.

석 84에 보이는 王莽의 예로 보아 조류도 제사 의례에서 희생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신라에서는 직접적으로 새가 태양 및 달과 연결됨을 보여주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D-5의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태양신인 연오랑과 달신인 세오녀가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빛이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라에서도 까마귀가 태양을 상징했음과 함께, 지방 제사의 중앙 편입과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다.<sup>53)</sup>

백제 시조 온조왕 시기의 天地 제사 때 나타난 異鳥 5마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매개자의 의미였다면, D-6에서 신라 내물왕이 始祖廟에 親祀할 때 廟庭에 모인 神雀은 조상신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내물왕은 김씨 세습 왕권을 확립한 인물이기도 하다.

D-7 『삼국유사』 사금갑조에서 毗處王(炤智王)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돼지, 쥐와 까마귀였다. 이로 말미암아 매년 정월 上亥日·上子日·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조심히 하고 감히 움직이지 않았으며, 15일을 烏忌日로 삼아 찰밥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여기서 왕의 생명을 구해준 까마귀도 祖靈이거나 그 使者로 볼 수 있으며, 그 대가로 정월 보름에 지낸 제사의 한 속성은 농경의례였다.<sup>54)</sup> 이러한 모습은 무속신화 속의 주인공인 바리공주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곧, 바리공주가 동서를 분간치 못할 때 烏鵲이 날아와서 길을 인도해주고 있다.<sup>55)</sup>

한편, 지증왕의 母는 새가 낳은 부인(鳥生夫人)이다.<sup>56)</sup> 지증왕은 중고기 왕실의 사실상 시조로 왕의 칭호를 처음 사용한 인물이기도 하다.

53)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1992, 73~74쪽.

54) 권오영, 「앞의 논문, 1999, 108~110쪽.

55) 김태곤·최운식·김진영,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88, 227~229쪽.

5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元年(500), “智證麻立干立. 姓金氏, 諱智大路[或云智度路 又云智哲老], 奈勿王之曾孫, 習寶葛文王之子, 照知王之再從弟也. 母金氏. 鳥生夫人, 訥祇王之女, 妃朴氏. 延帝夫人, 登欣伊浪女.”

이로 보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모두에서 새가 하늘과 땅을 연결 시켜주는 매개자이자 조상신과 연결되면서 제사 의례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 Ⅲ. 瑞像으로서의 새

#### 1. 붉은 까마귀, 기러기, 황새, 흰 새의 瑞像

E-1. 겨울 10월에 부여왕 帶素가 사신을 보내 붉은 까마귀를 보내 왔는데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었다. 처음에 부여 사람이 이 까마귀를 얻어 왕에게 바쳤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까마귀는 검은 것입니다. 지금 변하여 붉은 색이 되고, 또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것은 두 나라를 아우를 징조입니다. 왕께서 고구려를 함칠 것입니다.” 하였다. 대소가 기뻐서 그것을 보내고 아울러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알려 주었다. 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답하기를 “검은 것은 북방의 색인데, 지금 변해서 남방의 색이 되었습니다. 또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 물건인데 왕이 얻어서는 갖지 아니하고 나에게 보내었으니 두 나라의 존망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소가 그 말을 듣고 놀라며 후회하였다.<sup>57)</sup>

E-2. 9월에 1백여 마리의 기러기(鴻雁)가 왕궁에 모였다. 日者가 말했다. “기러기는 백성의 상징이므로, 장차 먼 곳에서 귀순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겨울 10월에 남옥저의 구파해 등 20여 家가 斧壤에 와서 귀순 하였다. 왕은 이들을 받아들여 漢山 서쪽에 거주하도록 하였다.<sup>58)</sup>

57)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3年(20), “冬十月, 扶餘王帶素遣使送赤鳥, 一頭二身, 初扶餘人得此鳥獻之. 王或曰, 鳥者黑也, 今變而爲赤, 又一頭二身, 并二國之徵也. 王其兼高句麗乎, 帶素喜送之, 兼示或者之言. 王與羣臣議答曰, 黑者北方之色, 今變而爲南方之色, 又赤鳥瑞物也. 君得而不有之, 以送於我, 兩國存亡, 未可知也, 帶素聞之, 驚悔.”

58)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43年(25), “九月, 鴻鴈百餘集王宮. 日者曰, 鴻鴈民之象也, 將有遠人來投者乎? 冬十月, 南沃沮仇頗解等二十餘家, 至斧

- E-3. 여름 4월에 都城門 위에 황새가 둥지를 틀었다.<sup>59)</sup>
- E-4. 가을 7월에 石川에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사열하였다. 이때 냇가에서 기러기 한 쌍이 날아가는 것을 왕이 쏘아서 모두 죽적시켰다.<sup>60)</sup>
- E-5. 봄 3월에 황새가 月城 귀퉁이에 둥지를 틀었다.<sup>61)</sup>
- E-6. 봄 2월에 史勿縣에서 꼬리가 긴 흰 꿩을 바쳤다.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현의 관리에게 곡식을 내려 주었다.<sup>62)</sup>
- E-7. 봄 2월에 加耶國에서 흰 꿩을 보냈는데, 꼬리의 길이가 5尺이었다.<sup>63)</sup>
- E-8. 봄 3월 1일에 왕자 理洪을 太子로 봉하였다. 13일에 크게 사면하였다. 沙火州에서 흰 참새(白雀)를 바쳤다.<sup>64)</sup>
- E-9. 여름 4월에 靑州에서 흰 참새를 바쳤다.<sup>65)</sup>
- E-10. 봄 3월에 靑州에서 흰 매를 바쳤다.<sup>66)</sup>
- E-11. 5월 ... 完山州에서 흰 까치(白鵲)를 바쳤다. ... 가을 7월에 熊川州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sup>67)</sup>
- E-12. 가을 9월에 完山州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여우가 월성 궁 안에서 울었는데, 개가 그것을 물어 죽였다.<sup>68)</sup>
- E-13. 3월 ... 溟江鎮에서 붉은 까마귀를 진상하였다.<sup>69)</sup>

壤納款, 王納之, 安置漢山之西.”

- 59)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己婁王 40年(116), “夏四月, 鶴巢于都城門上.”
- 60)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古尔王 7年(240), “秋七月, 大閱於石川, 雙鴈起於川上, 王射之皆中.”
- 61)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訖解尼師今 41年(350), “春三月 鶴巢月城隅.”
- 6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25年(441), “春二月, 史勿縣進長尾白雉, 王嘉之, 賜縣吏穀.”
- 6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8年(496), “春二月,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 64)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11年(691), “春三月, 一日, 封王子理洪爲太子. 十三日, 大赦, 沙火州獻白雀.”
- 65)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4年(715), “夏四月, 靑州進白雀.”
- 66)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8年(709), “春三月, 靑州獻白鷹.”
- 67)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9年(720), “五月, ... 完山州進白鵲. ... 秋七月, 熊川州獻白鵲.”
- 68)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孝成王 3年(739), “秋九月, 完山州獻白鵲, 狐鳴月城宮中, 狗咬殺之.”
- 69)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元年(785), “三月, ... 溟江鎮進赤烏.”

- E-14. 봄 정월 ... 熊川州에서 붉은 까마귀를 바쳤다.<sup>70)</sup>  
 E-15. 8월 ... 漢山州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sup>71)</sup>  
 E-16. 가을 9월 ... 武珍州에서 붉은 까마귀를 바치고 牛頭州에서 흰 꿩을 바쳤다.<sup>72)</sup>  
 E-17. 8월 ... 敵良州에서 붉은 까마귀를 바쳤다.<sup>73)</sup>  
 E-18. 가을에 敵良州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sup>74)</sup>

E-1에서 고구려 대무신왕 3년(20)에 부여왕 대소가 선물한 까마귀는 색깔은 붉으며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둘이었다. 『史記』周本紀4에는 주 무왕 9년에 은나라 紂王을 정벌하기 위해 출정했을 때 白魚와 赤鳥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붉은 까마귀는 서상으로 볼 수 있다. 『宋書』 권29, 符瑞下에는 赤鳥가 주 무왕 때 곡식을 머금고 오자 병사들이 칼로 피를 흘리지 않고서 은나라가 항복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E-1 사건 이후 고구려가 부여왕 대소를 戰死시키는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5)</sup>

E-2와 4는 백제에서의 기러기와 관련된 서상이다. E-2에서는 시조 온조왕 때의 日者가 기러기(鴻雁)는 백성의 상징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교적 五行觀이 아닌 북방 계통의 새 토tem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sup>76)</sup> 『宋書』卷32, 志22, 五行3에 의하면 晉 成帝 咸康 8년(342) 7월에 白鷺가 궁전에 나타났는데, 劉向은 이 사건에 대하여 “野鳥가 날아들어 왔으므로 궁궐이 장차 공허할 징조”로 해석하였다.<sup>77)</sup> 이로 보

70)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6年(790), “春正月, ... 熊川州進赤鳥.”

71)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昭聖王 元年(799), “八月, ... 漢山州獻白鳥.”

72)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2年(801), “秋九月, ... 武珍州進赤鳥, 牛頭州進白雉.”

73)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3年(802), “八月, ... 敵良州進赤鳥.”

74)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17年(825), “秋, 敵良州獻白鳥.”

75) 李熙德, 앞의 책, 46-48쪽.

76) 金永炫, 「百濟社會의 災異觀에 관한 고찰」 『歷史教育』 45, 1989, 213쪽.

77) 『宋書』卷32, 志22, 五行3, “晉成帝咸康八年七月, 白鷺集殿屋 是時康帝始即位

면 중국의 유교적 五行觀에서 새는 咎徵의 징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 초기 온조왕 때에는 토착 새 관념에 의해 기러기가 왕궁에 모인 것을 좋은 징조로 파악하였는데, 이후 고이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중국 유교적 五行 관념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E-4에서는 왕이 군대를 사열하면서 기러기 한 쌍을 직접 쏘아 떨어뜨리면서 권위를 과시하고 있다.

E-3과 5는 백제와 신라의 왕궁에 황새가 등지를 뜬 기사로, E-3의 백제 기루왕 때에는 都城門 위에, E-3의 신라 흘해왕 때에는 月城 귀퉁이에 등지를 틀었다.

E-13 신라 원성왕 원년(785)에는 패강진에서, E-14 원성왕 6년(790)에는 웅천주에서, E-16 애장왕 2년(801)에는 무진주에서, E-17 애장왕 3년(802)에는 삼량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바쳤다. 또한 E-15 소성왕 원년(799)에는 한산주에서, E-18 헌덕왕 17년(825) 가을에는 삼량주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

E-6 신라 눌지왕 25년(441) 봄 2월에 史勿縣에서 꼬리가 긴 흰 꿩을 바쳤고, E-7 신라 소지왕 18년(496) 봄 2월에 加耶國에서 역시 꼬리가 긴 흰 꿩을 바쳤으며, E-16 신라 애장왕 2년(801) 가을 우두주에서는 흰 꿩을 바쳤다.

E-8 신라 신문왕 11년(691) 봄에는 사화주에서 흰 참새를 바쳤고, E-9 성덕왕 14년(715) 여름에 靑州에서 역시 흰 참새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E-10에서는 신라 성덕왕 9년(709) 靑州 지방에서 흰 매를 잡아 왕에게 바친 기록이 있다. E-11 신라 성덕왕 19년(720) 5월과 7월에 완산주와 웅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는 기록이었고, E-12 효성왕 3년(739) 가을에도 완산주에서 흰 까치를 바치고 있다.

이처럼 흰 까치, 흰 매, 흰 까마귀, 흰 참새, 흰 꿩 등 흰 鳥類와 붉은

---

此不永之祥也。後涉再葑而帝崩，劉向曰，野鳥入處，宮室將空，張瓘在涼州正朝放佳雀諸鳥，出手便死，左右放者，悉飛去。”

까마귀 등의 특이한 조류는 瑞祥物로 인식되어 국왕에게 바쳐졌다. 이들은 모두 국왕의 德治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sup>78)</sup>

## 2. 새(조류)를 통한吉凶 관념

- F-1. 2월 庚午 초하루 戊寅 穴戶國司 草壁連醜經이 흰 꿩을 바치며, “國造首의 同族 贊가 정월 9일에 麻山에서 잡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것을 百濟君에게 물으니, 백제군이 “後漢 明帝 永平 11년(68)에 흰 꿩이 여기저기에 나타났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沙門들에게 물으니, 사문들이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시어 민심을 기쁘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道登法師는 “옛날 高麗가 절을 짓고자 하여 살펴보지 않은 땅이 없었는데, 바로 한 곳에서 흰 사슴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이 곳에 절을 세우고 白鹿蘭寺라고 이름하고 佛法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또 흰 참새가 한 절의 田莊에 나타났으므로 온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은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또 唐에 보냈던 사신이 다리가 셋인 죽은 새를 가지고 오니 나라 사람들이 또 좋은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비록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도 오히려 상서로운 일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흰 꿩이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sup>79)</sup>
- F-2. 여름 4월에 태자궁에서 암탉이 참새와 교미하였다. 장수를 보내 신라의 獨山과 桐峯 두 성을 침공하였다.<sup>80)</sup>
- F-3. 길하고 흉한 것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

78) 李熙德, 앞의 책, 1999, 199-227·283쪽.

79) 『日本書紀』卷25, 孝德天皇 白雉 元年(650) 2月, “二月庚午朔戊寅, 穴戶國司草壁連醜經, 獻白雉曰, 國造首之同族贊. 正月九日, 於麻山獲焉. 於是, 問諸百濟君, 百濟君曰, 後漢明帝永平十一年, 白雉在所見焉, 云云. 又問沙門等, 沙門等對曰, 耳所未聞, 目所未親, 宜赦天下, 使悅民心. 道登法師曰, 昔高麗欲營伽藍無地不覽, 便於一所, 白鹿徐行, 遂於此地, 營造伽藍, 名白鹿蘭寺, 住持佛法, 又白雀見于, 一寺田莊, 國人僉曰, 休祥. 又遣大唐使者, 持死三足烏來. 國人亦曰, 休祥, 斯等雖微, 尙謂祥物, 況復白雉.”

80)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19年(659), “夏四月, 太子宮雌雞與小雀交, 遣將侵攻新羅獨山桐峯二城.”

런 까닭에 紂는 赤雀이 나타났어도 망했고, 魯는 기린을 얻었어도 쇠했으며, 高宗은 장끼가 울었어도 흥했고, 鄭公은 龍이 싸웠음에도 흥했습니다.<sup>81)</sup>

F-4. 홀연히 새가 蘇定方の 진영 위를 빙빙 날아다녔다. 사람을 시켜 이를 잡치게 하니, 반드시 元帥가 상할 것이라 하였다. 소정방이 두려워하여 군사를 이끌고 그만두려고 하니, 金庾信이 소정방에게 일러 말하기를 “어찌 날아다니는 새의 괴이함으로 天時를 어길 수 있으리오 하늘에 응하고 민심에 순응하여 지극히 어질지 못한 자를 정벌하는데 어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겠소”라 하고는 神劍을 뽑아 그 새를 겨누니 새는 갈기갈기 찢어져서 자리 앞에 떨어졌다.<sup>82)</sup>

F-5. 德이 天에 이르면, 북두성과 북극성이 밝고 日月이 빛나며 甘露가 내린다. 德이 地에 이르면, 嘉禾가 생기고 蓂莢이 자라며 秬鬯이 나타나 太平하게 느낀다. ... 德이 鳥獸에 이르면 鳳皇이 날고 鸞鳥가 춤추며 麒麟이 오고 白虎가 오며 九尾狐와 白雉가 내려오고 白鹿이 나타나며 白鳥가 내려온다.<sup>83)</sup>

F-1 기록에 의하면, 왜에서 흰 꿩의吉凶에 대해 百濟君에게 물었고, 그는 흰 사슴, 흰 참새와 함께 그 상서로움에 대해 高麗와 唐의 예를 들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에서의 흰 꿩에 대한 瑞祥 관념을 알 수 있다.

『漢書』 王莽傳에 의하면, 王莽은 塞外 蠻夷로부터 흰 꿩(白雉)을 헌상하게 한 후 元始 元年 正月 太后에게 알려 詔를 내리게 하여 흰 꿩을 宗廟에 供上하였다.<sup>84)</sup> 이로 보아 흰 꿩은 宗廟제사에도 올리던 상서로운 새였

81) 『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上, “吉凶無常, 惟人所召, 故紂以赤雀亡, 魯以獲麟衰, 高宗以雉雉興, 鄭公以龍鬪昌.”

82) 『三國遺事』 卷1, 紀異1, 太宗春秋公, “忽有鳥迴翔於定方營上, 使人卜之曰, 必傷元帥 定方懼欲引兵而止. 庾信謂定方曰, 豈可以飛鳥之怪違天時也, 應天順人 伐至不仁何不祥之有, 乃拔神劍擬其鳥割裂而墜於座前.”

83) 『白虎通』 卷5, 封禪, “德至天則斗極明, 日月光, 甘露降, 德至地則嘉禾生, 蓂莢起, 秬鬯出, 太平感. ... 德至鳥獸則鳳皇翔, 鸞鳥舞, 麒麟臻, 白虎到, 狐九尾, 白雉降, 白鹿見, 白鳥下.”

84) 『漢書』 卷99上, 王莽傳 上, “始, 風益州令塞外蠻夷獻白雉, 元始元年正月, 莽白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같은 시기에 後漢의 班固(32~92)가 편찬한 F-5 『白虎通』에도 잘 나타나 있다.

F-2의 암탉이 참새와 교미한 기록은, 뒤이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이하지만 상서로움으로 파악한 듯하고, F4의 새가 蘇定方의 진영 위를 빙빙 날아다닌 기록은 불길한 징조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金庾信은 이러한 불길한 징조에 개의치 않고 행동하여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F-3의 김유신 열전 기록에도 잘 드러난다. 중국의 商高宗 武丁 때에 장끼가 울어 불길한 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흥했음을 예로 들어, 길흉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商高宗 때 장끼의 울음에 대한 불길함은 『史記』 殷本紀3의 “武丁(高宗)이 成湯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날 꿩이 날아와서 세발 달린 솔의 손잡이에 올라와서 울어대니 무정이 두려워하였다”는 기록을 옆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書經』 卷5, 商書7, 高宗 彤日에도 “高宗이 彤祭(제사 다음날에 지내는 제사)에 꿩이 우는 이변이 있었으니, 祖己가 이르기를 먼저 왕을 바로잡으면 그 일도 바로잡힐 것이라 하였다”는 같은 내용이 나온다.

### 3. 귀한 교역품으로서의 새

G-1. 겨울 10월에 왕이 扶餘에 행차하여 太后廟에 제사 지내고, 백성으로 딱하고 곤란한 자들을 위문하고 물건을 하사하였는데 차등이 있었다. 肅愼

---

太后下詔, 以白雉薦宗廟, 群臣因奏言太后, 委任大司馬莽定策安宗廟, 故大司馬霍光有安宗廟之功, 益封三萬戶, 疇其爵邑, 比蕭相國, 莽宜如光故事, 太后問公卿曰, 誠以大司馬有大功當著之邪, 將以骨肉故欲異之也. 於是群臣乃盛陳, 莽功德致周成白雉之瑞, 千載同符, 聖王之法, 臣有大功則生有美號, 故周公及身在而託號於周, 莽有定國安漢家之大功, 宜賜號曰安漢公, 益戶, 疇爵邑, 上應古制, 下準行事, 以順天心, 太后詔尙書具其事.”

사신이 와서 자주색 여우가죽 옷과 흰 매, 흰 말을 바쳤다. 왕이 잔치를 열어 그를 위로해서 보냈다.<sup>85)</sup>

G-2. 가을 9월 癸亥朔(1일) 백제가 낙타 1마리, 노새 1마리, 양 2마리, 흰 꿩 1마리를 바쳤다.<sup>86)</sup>

G-3. 신라에서 孔雀 1마리를 바쳤다.<sup>87)</sup>

G-4. 신라가 上臣 大阿滄 金春秋 등을 보내고 博士 小德 高向黑麻呂·小山中臣連押熊을 보내 와서, 孔雀 1마리와 鸚鵡 1마리를 바쳤다.<sup>88)</sup>

G-5. 신라가 사신을 보내 調를 올렸다. 따로 水牛 1두, 山鷄 1마리를 바쳤다.<sup>89)</sup>

G-6. 辛未(26일) 高向朝臣磨呂, 都努朝臣牛飼 등이 신라에서부터 돌아왔고, 學問僧 觀常, 靈觀이 따라왔다. 신라왕이 말 2필, 개 3마리, 앵무 2마리, 까치 2마리 및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내왔다.<sup>90)</sup>

G-7. 왕의 조카 志廉을 당나라에 보내 조회하고 은혜에 감사하였다. 일찍이 황제가 왕에게 흰 앵무 암수 각 1마리씩과 자주색 얇은 비단에 수놓은 두루마기[紫羅繡袍, 금으로 세공한 그릇, 상스러운 무늬가 있는 비단, 다섯 가지 색깔로 물들인 얇은 비단[五色羅綵] 등 도합 300여 段을 주었다.<sup>91)</sup>

G-8. 제42대 興德大王은 寶曆 2년 丙午(826)에 즉위했다.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이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앵무 1쌍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얼마

85) 『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69年(121), “冬十月, 王幸扶餘, 祀大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肅慎使來, 獻紫狐裘及白鷹白馬, 王宴勞以遣之.”

86)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7年(599) 秋9月, “秋九月癸亥朔, 百濟貢駱駝一匹·驢一匹·羊二頭·白雉一隻.”

87)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6年(598) 秋8月, “秋八月己亥朔, 新羅貢孔雀一隻.”

88) 『日本書紀』 卷25, 孝德天皇 3年(647) 12月, “新羅遣上臣大阿滄金春秋等, 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小山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鸚鵡一隻.”

89)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10年(671) 6月, “新羅遣使進調 別獻水牛一頭·山鷄一隻.”

90)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14年(686) 5月, “辛未, 高向朝臣麻呂·都努朝臣牛飼等, 至自新羅, 乃學問僧觀常·靈觀從至之, 新羅王獻物, 馬二匹·犬三頭·鸚鵡二隻·鵲二隻及種種物.”

91)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2年(733) 冬12月, “遣王姪志廉朝唐謝恩, 初帝賜王白鸚鵡雄雌各一隻及紫羅繡袍·金銀鈿器物·瑞紋錦·五色羅綵共三百餘段.”

못가 암늬이 죽자 홀로 남게 된 수늬이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sup>92)</sup>

G군의 기록들은 국가 사이에 선물로 오고 간 귀한 새에 대한 것이다. G-1은 고구려에 속신의 사신이 와서 자주색 여우가죽 옷과 함께 흰 매와 흰 말을 바친 기록이다. G-2의 백제에서는 法王 1년(599) 9월 왜에 사신을 보내면서 낙타, 노새, 양, 흰 꿩을 선물로 보냈다.

G-3에서 신라는 진평왕 20년(598)에 왜에 사신을 보내 공작 한 마리를 선물했고, G-4에서 진덕여왕은 즉위한 해인 647년에 대야찬 김춘추를 왜에 보내 공작 1마리와 앵무 1마리를 선물했다. G-5에서 문무왕 11년(671)에는 왜에 사신을 보내면서 물소와 산닭을 선물로 보냈다. G-6에서 686년에는 신라에 왔던 왜의 사신 高向朝臣磨呂와 都努朝臣牛飼 등이 神文王으로부터 말 2필, 개 3마리, 까치 2마리, 앵무 2마리를 선물로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G-7에서 신라 성덕왕 32년(733)에는 당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왕의 조카 지렴이 당 玄宗으로부터 희귀한 흰 앵무 1쌍을 선물로 받아 돌아왔고, G-8의 흥덕왕 즉위년(826)에는 당에서 앵무 1쌍을 선물로 받아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신라 흥덕왕 9년(834)에는 당시 만연하던 귀족들의 사치풍조를 일신하기 위하여 服色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하면서 진골 여인은 공작의 꼬리로 장식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sup>93)</sup> 이로 보아 당시 신라 귀족들이 공작 꼬리의 화려한 문양을 애용했음을 말해준다.

92) 『三國遺事』 卷2, 紀異2, 興德王 鸚鵡, “第四十二興德大王, 寶曆二年丙午即位未幾有人奉使於唐, 將鸚鵡一雙而至, 不久雌死, 而孤雄哀鳴不已.”

93) 『三國史記』 卷33, 志2, 色服, “眞骨女, 表衣禁闕繡錦羅, 內衣·半臂·袴·襪·履並禁闕繡羅, 袂禁闕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梳禁瑟瑟鈿·玳瑁 釵禁刻鏤及綴珠, 冠禁瑟瑟鈿, 布用二十八升已下, 九色禁赭黃.”

## IV. 사냥과 관리 대상으로서의 새

### 1. 매사냥과 꿩

- H-1. 가을 9월 庚子 초하루 依網의 屯倉에 있는 阿弭古가 기이한 새를 잡아서 天皇에게 바치며, “臣은 항상 그물을 쳐서 새를 잡는데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새는 잡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이하게 생각되어 이것을 바칩니다”라고 말하였다. 天皇은 酒君을 불러 새를 보이며, “이것이 무슨 새인가”하고 물었다. 酒君은, “이와 같은 새는 百濟에 많이 있습니다. 길 들여 사람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빨리 날아서 온갖 새들을 잡습니다. 百濟 사람들은 이 새를 俱知[이것은 지금의 매이다]라고 부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酒君에게 주어 길들이게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길들이 수 있었다. 그래서 酒君은 가족으로 만든 낚시줄을 그 밭에 매고 작은 방울을 그 꼬리에 달아서 팔뚝 위에 올려 놓고 天皇에게 바쳤다. 이 날 白舌鳥野에 행차하여 사냥을 하였다. 그 때 꿩이 많이 날아 올랐는데 매를 놓아 잡도록 하니 잠깐 사이에 수십 마리의 꿩을 얻었다.<sup>94)</sup>
- H-2. 백제 제29대 法王의 諱는 宣인데, 혹은 孝順이라고도 한다. 開皇 19년 己未(599)에 즉위하였다. 이 해 겨울에 詔를 내려 살생을 금하였다. 民家에서 기르던 鷹鷂의 종류들을 놓아주었고, 漁獵之具를 불태워 一切 禁止하였다.<sup>95)</sup>
- H-3. 지금 殿下께서는 날마다 狂夫 獵士와 더불어 매(鷹)와 개를 풀어 꿩과 토끼들을 쫓아 산과 들을 빨리 달리기를 스스로 그치시지 못합니다. 老子는 ‘달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고 하였고,

94) 『日本書紀』 卷11, 仁德天皇 43年(355), “秋九月庚子朔, 依網屯倉阿弭古, 捕異鳥, 獻於天皇曰, 臣每張網捕鳥, 未曾得是鳥之類, 故奇而獻之, 天皇召酒君. 示鳥曰, 是何鳥矣. 酒君對言, 此鳥之類, 多在百濟, 得馴而能從人, 亦捷飛之掠諸鳥, 百濟俗號此鳥曰俱知[是今時鷹也]. 乃授酒君令養馴, 未幾時而得馴, 酒君則以韋縲著其足, 以小鈴著其尾, 居腕上, 獻於天皇. 是日, 幸百舌鳥野而遊獵, 時雌雉多起, 乃放鷹令捕, 忽獲數十雉.”

95) 『三國遺事』 卷3, 興法3, 法王禁殺, “百濟第二十九主法王諱宣, 或云孝順 開皇十年己未即位, 是年冬下詔禁殺生, 放民家所養鷹鷂之類, 焚漁獵之具一切禁止.”

『書經』에는 ‘안으로 색을 일삼든지 밖으로 사냥을 일삼든지, 이 중에 하나가 있어도 혹 망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sup>96)</sup>

H-4. 승려 惠空은 天真公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던 노파의 아들인데 어릴적 이름은 憂助였다. ... 장성하자 공을 위하여 매를 길렀는데 공의 마음에 들었다.<sup>97)</sup>

H-5. 신라 眞骨 제31대 왕인 神文王 때인 永淳 2년(683) 癸未에 재상 忠元公이 葭山國[곧 東萊縣이며 萊山國이라고 한다] 온천에서 목욕하고 城으로 돌아올 때 屈井驛 桐旨野에 이르러 쉬었다. 홀연히 한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쫓게 하니 꿩이 날아서 金岳을 넘어가는데 간 곳이 묘연하였다. 방울소리를 듣고 찾아가 屈井縣 관가 북쪽 우물가에 이르니 매는 나무 위에 앉아 있고, 꿩은 우물 속에 있는데 물이 핏빛과 같았다. 꿩은 두 날개를 벌려 새끼 두 마리를 안고 있었으며, 매도 또한 측은히 여기는지 감히 잡지 않았다.<sup>98)</sup>

H-6. 神母는 본래 中國帝室의 딸로 이름은 娑蘇이다. 일찍이 신선의 술법을 얻어 海東에 와서 머물며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 황제는 書信을 술개의 발에 매어 부쳐 보내어 이르기를 “술개가 머무는 곳을 따라 집을 지어라”라고 하였다. 사소는 서신을 보고 술개를 놓아주었더니 날아서 이 산에 이르러 멈췄으므로 마침내 와서 집을 짓고 地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름을 西齋山이라 하였다. ... 제 54대 景明王(재위 917~924)은 매사냥을 좋아했는데, 일찍이 이 산에 올라 매를 놓았다가 잃어버리고 神母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만약에 매를 찾게 되면 마땅히 封爵해 드리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갑자기 매가 날아와서 책상 위에 앉았다. 이로 인하여 大王으로 봉작했다. 그가 처음에 辰韓에 이르러 聖子를 낳아 東國의 첫 임

96) 『三國史記』 卷45, 列傳5, 金后稷, “今殿下, 日與狂夫獵士, 放鷹犬逐雉兔 奔馳山野, 不能自止.”

97) 『三國遺事』 卷4, 義解5, 二惠同塵, “釋惠空, 天真公之家傭媪之子, 小名憂助, ... 既壯爲公養鷹, 甚愜公意.”

98) 『三國遺事』 卷3, 塔像4, 靈鷲寺, “寺中古記云, 新羅眞骨第二十一主神文王代, 永淳二年癸未, 宰相忠元公葭山國[卽東萊縣 亦名萊山國]溫井沐浴, 還城次到屈井驛桐旨野駐歇, 忽見一人放鷹而逐雉, 雉飛過金岳杳無蹤迹, 聞鈴尋之到屈井縣官北井過, 鷹坐樹上, 雉在井中水渾血色, 雉開兩翅抱二雛焉, 鷹亦如相側隱而不敢攫也.”

금이 되니, 아마 赫居世와 闕英 두 聖人の 유래일 것이다. 그러므로 雞籠, 雞林, 白馬 등으로 부르는 이유는 닭이 서쪽에 속하기 때문이다.<sup>99)</sup>

H 사료군은 백제와 신라에서 매를 이용한 사냥에 대한 기록이다. 고구려 삼실총 등 고분벽화에도 매사냥 그림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사냥은 삼국 모두에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삼실총 수렵도의 매사냥

H-1은 백제에서 매를 이용한 꿩 사냥이 아주 보편적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H-3에서 신라 진평왕이 매 사냥에 매우 심취하여 충신 김후직이 사냥 그만둘 것을 간하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 중고기 왕실에서 매 사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H-4의 신라 善德女王 때(재위 632~647)

99) 『三國遺事』 卷5, 感通7, 仙桃聖母隨喜佛事, “神母本中國帝室之女, 名娑蘇, 早得神仙之術, 歸止海東, 久而不還. 父皇寄書繫鷲足云, 隨鷲所止爲家, 蘇得書放鷲, 飛到此山而止, 遂來宅爲地仙, 故名西鷲山. … 第五十四景明王好使鷹, 嘗登此放鷹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鷹, 當封爵, 俄而鷹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其始到辰韓也. 生聖子爲東國始君, 蓋赫居闕英二聖之所自也. 故稱雞籠雞林白馬等, 雞屬西故也.”

승려인 惠空이 장성하여 품팔이하던 집주인인 天真公을 위해 매를 길렀는데 천진공의 마음에 들었다는 기록은 신라 귀족의 집에서도 사냥용 매를 길렀음을 알려준다. 또한, H-2의 백제 법왕이 민간에서 길러 사냥에 사용하던 매를 모두 풀어주게 하였다는 기록과 H-5의 신라 신문왕 때 재상인 충원공이 장산국 온천에 갔다가 돌아올 때 민간에서 매를 놓아 꿩을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민간에서도 매 사냥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H-6 『三國遺事』 仙桃聖母隨喜佛事는 신라 혁거세와 알영이 仙桃山 神母(仙桃聖母)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전승인데, 이는 원래 신화적인 내용이었으나 후대에 신화의 요소가 많이 탈각되어 전승된 뒤에 기록된 것이다.<sup>100)</sup> 이 신라의 神母인 娑蘇는 솔개가 머문 곳에 거처를 정했고, 경명왕이 잃어버린 매를 찾아 주었으며, 雞籠, 雞林, 白馬 등의 칭호도 신모가 유래한 서방과 관계가 있다고 하여 솔개, 매, 닭 등 조류와 밀접하게 관념되고 있다. 景明왕이 매사냥을 즐겼고, 선도산에 매사냥을 갔다가 매를 잃어버렸다는 기록을 통해 신라 하대의 왕도 매 사냥을 즐겨 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라에서는 민간에서 귀족과 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매 사냥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 2. 정월(원지)의 새

I-1. 봄 정월에 궁실을 고치고 수리하였으며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기이한 새와 특이한 화초를 길렀다.<sup>101)</sup>

100) 신라 건국신화와 제사 체계 속에서 仙桃聖母의 위상과 시기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이장웅,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新羅史學報』 38, 2016 참조.

101)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辰斯王 7年(391) 春正月, “七年春正月, 重修宮

- I-2. 봄에 臨流閣을 궁궐 동쪽에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 장이었으며, 또 못을 파고 진기한 새를 길렀다. ... 5월에 가물었다. 왕은 左右와 더불어 임류각에서 연회를 하였는데 밤새도록 환락을 다하였다.<sup>102)</sup>
- I-3. 3월에 궁궐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 리에서 물을 끌어들이었으며, 네 언덕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물 가운데는 섬을 축조하여 方丈仙山에 비기었다.<sup>103)</sup>
- I-4. 2월에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sup>104)</sup>

I군 기록들은 궁궐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I-1 백제 진사왕은 기이한 새와 특이한 화초를 길렀고, I-2 동성왕도 진기한 새를 길렀다고 하였으며, I-3 무왕은 궁남지를 만들면서 方丈仙山에 비졌다고 하여 도교와의 관련도 보이고 있다.<sup>105)</sup> 이로 보아 특히 백제가 한성기 말에서 웅진기, 사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궁궐 안에 인공 정원을 만들고 기이한 새 등 동물과 식물을 많이 길렀음을 알 수 있다.<sup>106)</sup> 이후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I-4의 신라 문무왕도 산에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三國遺事』 元聖大王條에는 황룡사의 중 智海를 대궐로 청하여 50일 동안 화엄경을 외게 하였는데, 사미 妙正이 궁궐로 따라와서 매양 金光井에 가서 바릿대를 씻을 때 자라 한 마리가 우물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므로, 늘 먹다 남은 밥을 자라에게 주면서 희롱했

室, 穿池造山, 以養奇禽異卉.”

102)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22年(500), “二十二年春, 起臨流閣於宮東, 高五丈, 又穿池養奇禽 ... 五月, 旱. 王與左右宴臨流閣, 終夜極歡.”

103)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35年(634) 3月, “三月,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 擬方丈仙山.”

10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4年(674) 2月, “二月, 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奇獸.”

105) 장인성, 「고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백제 원지」 『百濟文化』 56, 2017.

106) 金榮官, 앞의 논문, 2008, 11쪽.

다는 기록이 있다.<sup>107)</sup> 이로 보아 금광정은 신라 하대 궁궐 안에 있던 정원의 연못이고, 그 안에 자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몽촌토성 동문지 출토 목제 오리 조각품



평양 오아리 19호 출토 漆鳩杖首



궁남지 출토 새머리 목제품



부여 부소산성사지 출토 벽화편

이러한 정원(원지)과 관련된 진기한 새는 도교적인 관념과 관련될 수 있다. 몽촌토성 동문지 일대의 NE1-17坑 표토 아래 240cm 깊이의 뿔층에서는 목제 오리 조각품이 출토되었다. 꼬리만 약간 손상되었을 뿐 거의 완형으로, 길이 9.2cm, 두께 1.4cm이다.<sup>108)</sup> 이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자료

107) 『三國遺事』卷2, 紀異2, 元聖大王, “王一日, 請皇龍寺, 注或本云華嚴寺又金剛寺香, 蓋以寺名經名光混之也. 釋智海入內稱華嚴經五旬, 沙彌妙正每洗鉢於金井[因大賢法師得名]邊, 有一鼈浮沉井中, 沙彌每以殘食餽而爲戲.”

로는 중국 漢代에 80세 이상 오래 산 노인에게 국가에서 지급하였다는 꼭 대기에 새 장식을 꽂은 지팡이인 鳩杖首가 있다. 낙랑 지역에서도 목제, 청동제, 토제로 만든 鳩杖首의 출토예가 있는데, 새의 형상은 비둘기·닭 등으로 다양하면서 사후 저승으로 운반하는 매체로 상징되었다고 한다.<sup>109)</sup> 따라서 이 몽촌토성 오리 조각품은 정원의 난간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래쪽이 편평하면서 평양 오야리 19호 출토 漆鳩杖首와 비슷하여 鳩杖首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외에 부여 궁남지에서 출토된 새머리 목제품도 도교 관념과 관련될 수 있고, 부여 부소산성 내에 위치한 부소산사지에서는 비둘기로 추정되는 새 그림이 그려진 벽화편이 출토되었는데,<sup>110)</sup> 이는 불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3. 음식 재료로서의 새

- J-1. 왕의 식사는 하루에 飯米 3斗, 수평 9마리였다. 庚申年(660)에 백제를 멸망시킨 후부터는 점심 식사를 제외하고 단지 아침, 저녁만 하였다. 그러나 합하면 하루에 米 6斗, 술 6斗, 평 10마리였다.<sup>111)</sup>
- J-2. 源谷羊典은 興德王 4년(829)에 두었다. 大舍는 1명, 看翁은 1명이다. ... 月池典 ... 庖典은 大舍가 2명, 史는 2명, 從舍知는 2명이다. 月池嶽典은 大舍가 2명, 水主는 1명이다. 龍王典은 大舍가 2명, 史는 2명이다.<sup>112)</sup>
- J-3. ‘월지(안압지)’ 출토 목간에 나타난 동물성 발효식품

108) 서울대학교 박물관, 『夢村土城發掘調查報告』, 1985, 143·325쪽.

109) 김길식, 「鴨馬形土器의 軌蹟」 『상형토기의 세계(丹豪文化研究12)』, 용인대학교박물관, 2008, 115~116쪽.

110) 한정호, 「百濟 절터 出土 壁畫片과 法隆寺 玉蟲廚子」 『石堂論叢』 60, 2014.

111) 『三國遺事』 卷1, 紀異1, 太宗春秋公, “王膳一日飯米三斗, 雄雉九首, 自庚申年減百濟後, 除晝膳, 但朝暮而已. 然計一日米六斗, 酒六斗, 雉十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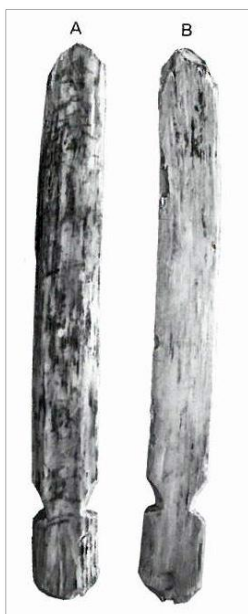
112) 『三國史記』 卷39, 雜志8, 職官 中, “源谷羊典 興德王四年置, 大舍一人, 看翁一人, ... 月池典, ... 庖典, 大舍二人·史二人, 從舍知二人, 月池嶽典, 大舍二人·水主一人, 龍王典, 大舍二人·史二人.”

식품종류		목간관독문	현대어
젓(助史)	어류	加火魚助史(188)	가오리 젓
		魚助史(215)	물고기 젓
	육류	猪助史(211, 212)	돼지 젓
		獐助史(222)	노루 젓
젓국(水助史)	육류	猪水助史(183)	젓국
식해(醢)	어류	加火魚醢(193, 221)	가오리 식해
	육류	鹿醢(195)	사슴 식해
	조류	鳥醢(216)	새 식해
	원료미상	醢(185, 214)	식해



안압지  
216호 목간

J-4. 舍尸麻村 今一鷄得鳩□受 受 受 (월성 해자 신5호(꼬리표1) 목간)



월성 해자 신5호 목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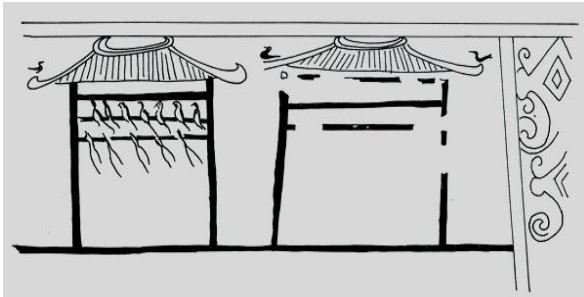
J-1에서 신라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하루에 쌀 세 말과 꿩 아홉 마리를 먹었고,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부터는 쌀 여섯 말과 꿩 열 마리를 먹었다고 하므로, 왕의 식사에 꿩이 부식으로 매우 중요했으며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다.<sup>113)</sup>

고구려에서도 集安 麻線溝 1호분 고기간과 평남 대동군 팔청리 벽화분의 고기간에 걸린 꿩을 통해서 꿩을 애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꿩은 한국 고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식용된 조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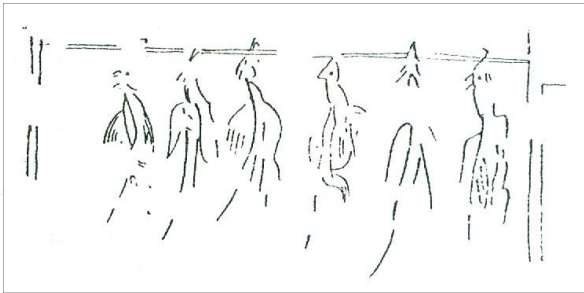
그럼 이러한 꿩을 비롯한 새(조류) 등 동물을 관리하던 건물, 관청이나 보관 창고 등이 있었던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월지(안압지) 발굴

113) 尹瑞石, 「新羅時代 飲食의 研究—三國遺事를 中心으로 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創刊號, 1980, 165쪽.

보고서에는 T-3區의 3.3×3.5m 단칸 건물지에 동서 방향으로 배수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장방형 磚을 폭 40cm의 크기로 깔아 물이 흐르게 한 것 같다고 하였고, U-3구 건물지 동단 중간에서 북쪽 L-V4 垣牆과 만나도록 하였다면서, 이를 여기서 기르던 동물과 관련된 특수 목적의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sup>114)</sup>



集安 麻線溝 1호분 고기간 모사도(평 등 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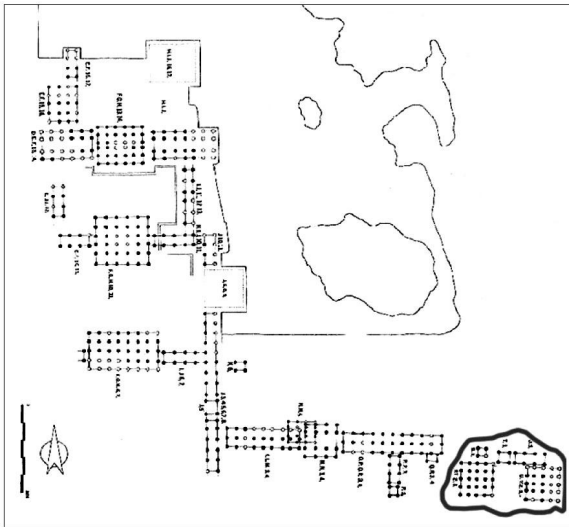


평남 대동군 팔청리 벽화분 고기간 모사도(평 등 조류)

이 월지(안압지) 남쪽 부분의 동서로 긴 건물지들에 있는 3.5m 폭의 긴 회랑에 주목하여, 이곳이 J-2에 기록된 동궁 내 주방기구인 庖典이면서 젓갈이나 장 등이 늘어선 보관 장소로 본 견해가 있다.<sup>115)</sup> 포전의 성격은

11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1978, 76쪽.

정례적인 군신의 만찬, 龍王典이 주최하는 제사 등 東宮에서 개최되는 의례에 음식을 낸 곳으로 보고 있다.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제사에 진설된 음식 중에는 兪醢, 魚醢, 鹿醢, 醢醢 등 발효식품도 있다는 점에서, 월지의 건물에서 동물성 발효 저장식품이 만들어지고 보관되었다면 이는 제사의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sup>116)</sup>



월지(안압지)의 식문화 관련 건물 추정지

대체로 8세기 중반에 제작된 ‘월지(안압지)’ 출토 목간에 나오는 어류, 조류, 육류를 이용한 발효 식품을 정리하면 J-3과 같은데, 이들 중 216호 목간에는 새 식해도 보인다. 실제 월지(안압지) 발굴에서는 소, 말, 돼지, 개, 노루, 산양, 사슴, 멧돼지 등의 포유류와 함께 꿩, 오리, 닭, 기러기, 거

115) 이용현, 「안압지와 東宮 庖典」 『新羅文物研究』 1, 國立慶州博物館, 2007, 68~70쪽.

116) 권주현, 「통일신라시대의 食文化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8, 2012, 294쪽.

위 등의 조류도 확인되어,<sup>117)</sup> 목간 내용과 부합되고 있다.

J-2의 『三國史記』職官志의 源谷羊典은 양을 사육하여 조달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月池典은 월지의 사무 관리 부서이고, 月池嶽典은 월지의 嶽인 섬의 조경 및 동물 관리와 함께, 직원 중에 水主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수나 급수 시설 관리도 담당할 부서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애장왕 때(800~ 809)에 설치되었다고 한다.<sup>118)</sup> 이로 보면, 포전, 월지전, 월지악전 등을 통해 새(조류)를 비롯한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었고, 제수용품이나 일반 식료품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작성 시기를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는 월성 해자 목간들 중 최근 발굴된 J-4의 <월성 해자 신5호(꼬리표1) 목간>을 통해서 새(조류)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수납하여 창고에서 관리하면서 음식 재료 등으로 사용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목간은 “舍尸麻村, 지금 닭 한 마리, 꿩□을 얻고, 兕을 받음”으로 해석되므로, 舍尸麻村에 할당된 공물인 닭, 꿩, 兕 등을 지금 수납하였고, 그 물품을 월성의 국가 창고에 보관하면서 제작한 부찰 목간으로 보인다.<sup>119)</sup>

## V. 새 관련 고고 유물의 부장 양상 변화를 통해 본 새 관념의 변화

K. 소나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소나 말은 모두 장례용으로 써버린다. ...  
동물과 草木은 대략 中國과 동일하다. 큰 밤이 생산되는데 그 크기가 배만

117) 국립경주박물관(박방룡 외 4인),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관』, 2002.

118) 이용현, 「안압지 목간과 동궁(東宮) 주변」 『역사와 현실』 65, 2007, 2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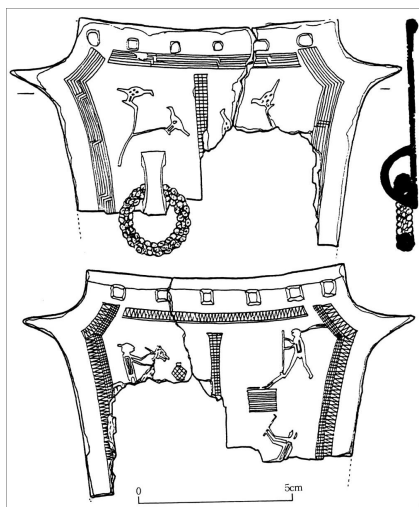
119) 윤선태,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관독」 『목간과 문자』 20, 2018, 98~99쪽 ; 이용현, 「배산성지 출토 목간과 신라 사회」 『釜山 금석문- 역사를 새겨 남기다』, 부산시립박물관, 2018, 322쪽.

큼 크다. 또 細尾雞가 나는데 그 꼬리의 길이는 모두 5尺 남짓 된다. ... 또 州胡가 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의 큰 섬에 있다. ...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 ... 弁辰도 12國으로 되어 있다. ...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 혼인하는 예법은 남녀의 분별이 있었다.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다.<sup>120)</sup>

K에서는 삼한 지역의 소, 말에 대한 관념과 함께 동물은 대략 중국과 비슷하며 마한 지역에서는 특히 꼬리가 긴 細尾雞가 유명하다고 하였다.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라는 장례에서의 조류 관념도 알 수 있다.



논산 마전리유적 출토 새모양 목제품



농경문 청동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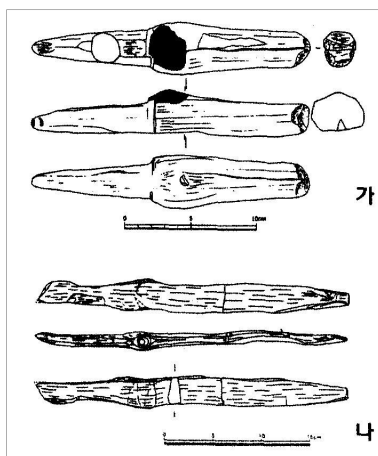
120) 『三國志』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 ... 禽獸草木略與中國同, 出大栗, 大如梨, 又出細尾雞, 其尾皆長五尺餘. ...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 好養牛及豬. ... 弁辰亦十二國. ... 乘駕牛馬, 嫁娶禮俗, 男女有別,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한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새 형상 고고학 자료는 청동기시대의 논산 마전리 수전 유적 출토 鳥形 木製品과<sup>121)</sup> 철기시대의 農耕文 靑銅器로, 새를 매개로 한 농경의례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새는 하늘을 날아서 곡령을 물고 풍요를 가져온다는 의미를 가진다. 농경문 청동기의 고리가 있는 면에는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뒷면에는 벌거벗은 성기 큰 남자가 새 깃털을 머리에 꽂고[鳥人] 따비로 밭갈이를 하고 있어 봄의 起耕 의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도 볍씨, 탄화미 등 각종 씨앗류와 함께 鳥形 木製品이 발굴되었다.<sup>122)</sup>

夬辰에서 장례 때에 큰 새의 깃털로 주검을 보낸다는 기록은, 당시 장송 의례에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시신과 함께 부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새는 하늘을 날아 사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운반하는 매개체로 관념된 것이다.

창원 다호리 1호묘, 성주 예산리 30호묘,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3호묘 등 기원전 1세기 대의 구유형 통나무 목관묘에서 출토된 가슴 위에 올려진 새(뺨) 깃털 장식 부채는 바로 이러한 기록의 실물로 볼 수 있다. 새 깃털 부채가 출토된 무덤들은 각 분묘군 내에서 가장 부장품이 많이 발굴된 각 지역의 수장 무덤이다.



새무늬 청동기(鳥文靑銅器)는 夬  광주 신창동 유적 출토 鳥形 木製品

121) 이홍중 외, 『論山 麻田里 遺蹟』,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0.

122) 趙現鍾, 「鳥形木製品과 農耕儀禮」 『全南史學』 19, 2002, 573쪽.

辰 지역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평야의 남서쪽 야산에 해당하는 경남 고성읍 東外洞 유적 내 구릉 정상부의 수혈 제사 유구에서 출토되었다.<sup>123)</sup> 이 야산은 현재도 堂山이라 불리면서 음력 설달 그믐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새무늬 청동기의 앞면에는 크게 상하 2부분으로 나누어 상부에는 손바닥무늬가 있으며, 하부에는 새 두 마리가 좌우 대칭으로 새겨져 있다. 손바닥무늬 윗부분에는 여러 마리의 새를 좌우 대칭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좌우면에 고사리 무늬가 새겨진 돌출부가 있고, 윗면에는 원형고리가 7개 달렸다. 손바닥 무늬 위에는 고사리 무늬, 톱니 무늬, 점열 무늬 등이 치밀하게 새겨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여러 마리의 작은 새를 좌우 대칭으로 표현하였다. 가운데 두 마리의 큰 새와 함께 주변에 작은 새 40마리가 있어, 모두 42마리의 새가 새겨져 있다.

한편, 마한 지역인 전남 영광군 화평리 수동마을의 목곽묘에서도 東外洞 출토품과 동일한 새 무늬 청동기가 출토되어,<sup>124)</sup> 새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삼한 지역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새무늬 청동기는 갈퀴가 과장되면서 주연부를 거치문으로 표현하였으며, 冠을 씌운 鶴鳥처럼 표현된 점에서 鴨形土器와도 형태적 특징이 부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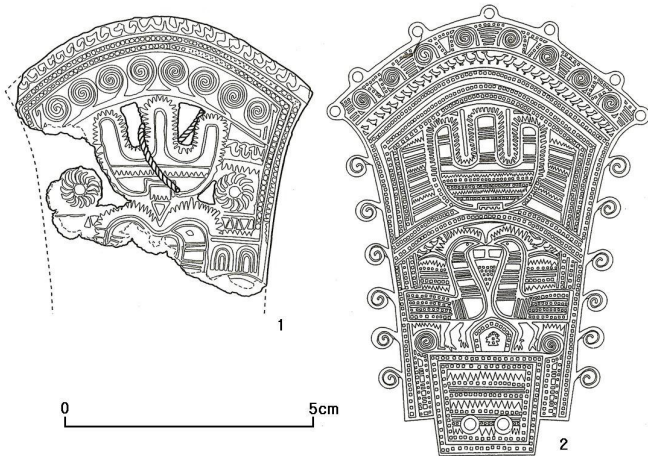


성주 예산리 30호 목관묘의 부채 부장 복원도

고성 동외동 유적 전경

123) 국립진주박물관, 『固城貝塚』, 2003.

124) 이기길 외,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조선대학교 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3.



영광 수동 출토 새무늬 청동기 고성 동외동 출토 새무늬 청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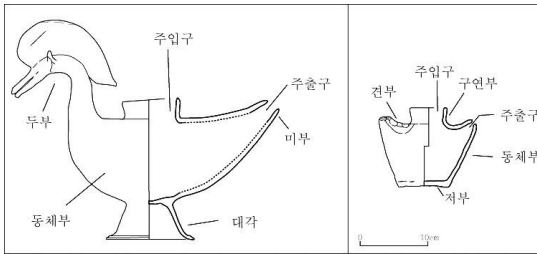
영남 지역에서는 3세기 중엽에 鴨形土器가 등장하여 6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sup>125)</sup> 鴨形土器는 대부분 2마리씩 쌍으로 출토되고, 울산 중산리 ID-75호묘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출토되고 있어, 새무늬 청동기에 2마리의 새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과는 상통한다.<sup>126)</sup> 농경문 청동기에서도 솟대 위에 새 한 쌍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살펴본 『동명왕편』에 나타난 비둘기 한 쌍, 『삼국사기』에 수록된 피꼬리(黃鳥) 한 쌍에 나타난 穀靈 및 祖靈 관념을 지닌 새 관념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압형토기는 3세기 후반부터 형산강과 태화강 일대의 고분에 부장되는데, 4세기 전반부터는 목 또는 다리가 없거나 4족 등의 변형이 나타나면서

125) 金東淑, 「신라·가야의 象形容器와 분묘 제사」 『상형토기의 세계(丹豪文化研究12)』, 용인대학교박물관, 2008.

126) 김길식, 「鴨馬形土器의 軌蹟」 『상형토기의 세계(丹豪文化研究12)』, 용인대학교박물관, 2008, 118쪽.

매납된 분묘의 규모가 작아지고, 수혈과 저습지에도 매납되며, 분포 범위가 경주 외곽 지역으로 확대된다. 5세기 전반부터는 압형토기 매납이 쇠퇴하면서 舟形·家形·곶간형·신발형 토기 등 象形土器의 매납이 증가한다고 한다.<sup>1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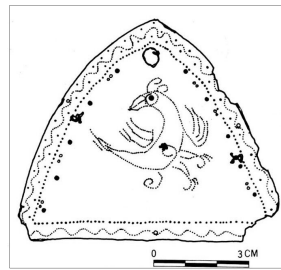
압형토기와 조형토기의 각부 명칭



함안 도항리 출토  
有刺利器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판갑 후동부  
상단의 마주보는 새 장식



익산 입점리 86-1호분 출토  
백제 금동제 관식의 새무늬

그런데 이러한 신라 지역과 달리 가야 지역에서는 새 표현물이 증가한다. 동래 복천동 38·86호묘에는 압형토기와 갑주류가 동시에 부장되었고,

127) 홍보식, 「신라·가야지역 象形土器의 변화와 의미」 『韓國上古史學報』 90, 2015, 56~58쪽.

김해 대성동 2호분에는 관갑의 후동부 상단에 마주보게 새 모양을 장식하였다. 5세기 전반 이후 함안 도항리·말산리 고분군과 합천 옥전 고분군 등지에서는 有刺利器에 새를 표현하였다. 이들 有刺利器의 모양과 장식된 새 및 문양은 새무늬 청동기와 유사한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sup>128)</sup> 이는 이 시기에 강조되는 무장적 요소에도 전통적인 천손강림·곡령·死靈 관념이 복합되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압형토기 부장이 쇠퇴하고 중·소형묘에도 부장되는 모습은 농경·장승·천손강림 등 중요한 의례 행위의 복합적 상징물로 압형토기(새)를 매개로 한 관념 체계의 틀이 점차 무너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새로운 관념 또는 제사 체계가 분화되면서 각각의 성격을 상징하는 상형토기가 사용되기 시작된다고 한다. 이는 조령신의 퇴화나 의례 주재자의 신분이 격하되었음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특히 6세기 후반 이후에는 동물을 본뜬 매체를 통해 관념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쇠퇴하면서, 상형토기나 토우 부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sup>129)</sup>

한편, 호남 지역에서는 1세기부터 제의적 성격이 강한 鳥形土器가 등장하여 5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남 지역 압형토기와 호남 지역 조형토기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진·변한 지역과 마한 지역의 새 관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백제 중앙 지역에서는 조형토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백제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마한 계통의 조형토기가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130)</sup> 『周書』에는 百濟에 ‘낙타·당나귀·노새·양·거위·오리 등은 없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sup>131)</sup> 백제의 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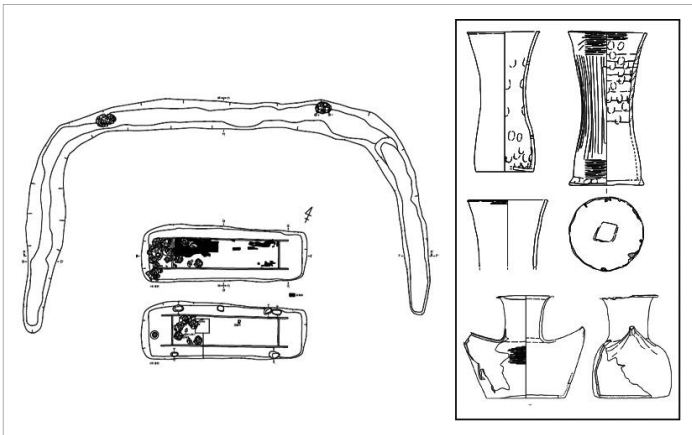
128) 김훈희, 「藏手型 有刺利器의 變遷과 意味」 『한국고고학보』 81, 2011.

129) 홍보식, 「신라-가야지역 象形土器의 변화와 의미」 『韓國上古史學報』 90, 2015, 56~58쪽.

130) 김영희, 「호남지방 鳥形土器의 성격」 『湖南考古學報』 44, 2013.

131) 『周書』 卷49, 列傳41, 異域上 百濟, “五穀·雜果·菜蔬及酒醴·餽饌·藥品之屬, 多同於內地, 唯無駝·驢·騾·羊·鵝·鴨等.”

대한 관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익산 입점리 86-1호분 출토 금동제 관식에는 사실적인 새무늬가 묘사되었으며, 鳥足文土器는 한반도 중서부에서 출현하여 서남부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출현·발전·쇠퇴하였다.<sup>132)</sup>



아산 박지므레 2-2-23호 주구토광묘 출토 조형토기와 원통모양 토기



아산 명암리 박지므레 2-1지점 12호 주구토광묘 출토 새모양 토제품

132) 崔榮柱, 「鳥足文土器의 變遷樣相」 『韓國上古史學報』 55, 2007, 110쪽.

필자는 영남의 압형토기와 호남의 조형토기가 모두 주입구와 주출구가 존재하여 용기의 기능을 하고, 중심 묘제가 아닌 주변 묘제에서 출토되면서 신과 교감하기 위한 의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두 지역 사이에 공통적인 새 관념이 보다 컸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아산 명암리 밖지르레 유적에서는 2-2-23호 주구토광묘에서 호남 마한 계통의 鳥形土器가, 2-1-12호 주구토광묘에서 영남 지역의 압형토기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된 새모양 토제품 한 쌍이 출토되고 있어, 호남과 영남의 새 관념을 아우르는 사례로 주목해볼 수 있다.

새(조류)를 형상화한 압형토기와 조형토기는 모두 대략 5세기 전반부터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새 관념에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문헌 자료들의 시기에 따른 변화 모습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곧, 신화 속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자이자 祖靈, 穀靈으로 관념되었던 새가 점차 중국 유교식 瑞像 관념의 영향으로 길흥을 보여주는 징조와 귀한 교역품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6세기 이후로는 사냥용, 정원의 관상용과 음식 재료용 등으로 신성성보다는 실용성 위주로 파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VI. 마무리

한국 고대의 신화와 제사 의례 속에서 새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매개하거나 조상신과 연결되며,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장송 의례에 사용되거나, 곡령신을 불러다 주는 매개체로 농경의례에 사용되면서 매우 신성시되었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고대인의 새 관념에 대해 단편적으로 살폈다면, 본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새 관념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문헌 기록과 고고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를 형상화하여 영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압형토기와 호남 지역의 조형토기가 5·6세기에 들어서면서 쇠퇴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때까지 신화와 제사 의례 속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던 새 관념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 문헌 기록상에서는 이 시기 이후에 흰 꿩이나 참새 등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신기한 서상물로 여겨지거나 길흉의 징조로 파악되면서 추상적인 신화 속 관념보다는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점차 새가 신성한 의미보다는 신기한 동물로 인식되어 정원 등에서 관리되고, 사냥 대상이나 음식물로서의 의미가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산 임당 고분 등에 다량으로 부장된 새(조류)의 의미도 영혼의 운반자이자 조상신이라는 이전의 신성한 관념보다는 진귀한 부장품으로서의 의미와, 사자를 위한 음식물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사료

『山海經』 『史記』 『漢書』 『三國志』 『魏書』 『周書』 『宋書』 『白虎通』  
『三國遺事』 『三國史記』 『東國李相國集』  
『日本書紀』

### 2. 저서

고은별·이준정·김대욱,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 - 포유류·조류』, 영남대학교박물관, 2017.  
국립경주박물관(박방룡 외 4인),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관』, 2002.  
국립진주박물관, 『固城貝塚』, 2003.  
김태곤·최운식·김진영,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8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1978.  
서울대학교 박물관,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 1985.  
신정훈,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 혜안, 2013.  
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이기길 외, 『영광 마진·군동·원당·수동유적』, 조선대학교 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3.  
李恩奉, 『韓國古代宗教思想－天神·地神·人神의 構造』, 集文堂, 1984.  
李志映, 『韓國神話의 神格 由來에 관한 研究』, 태학사, 1995.  
이홍중 외, 『論山 麻田里 遺蹟』,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0.  
李熙德,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혜안, 1999.  
이희덕, 『高麗時代 天文思想과 五行說 研究』, 一潮閣, 2000.  
전덕재,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태학사, 2002.

### 3. 논문

고은별, 「임당 고총 동물부장 연구－조류 부장 양상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106, 2018.  
권오영,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祭儀」 『역사와 현실』 32, 1999.  
權珠賢, 「加耶人の 生活文化－食文化를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 권주현, 「통일신라시대의 食文化 연구」 『韓國古代史研究』 68, 2012.
- 金榮官, 「삼국시대 동물원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 13, 2008.
- 金永炫, 「百濟社會의 災異觀에 관한 고찰」 『歷史教育』 45, 1989.
- 김길식, 「鴨馬形土器의 軌蹟」 『상형토기의 세계(丹豪文化研究12)』, 용인대학교 박물관, 2008.
- 金東秀, 「神話를 통해본 古代人의 鳥類觀」 『日本學報』 44, 2000.
- 金東淑, 「新羅·伽倻 墳墓의 祭儀遺構와 遺物에 관한 研究」 『嶺南考古學』 30, 2002.
- 金東淑, 「신라·가야의 象形容器와 분묘 제사」 『상형토기의 세계(丹豪文化研究 12)』, 용인대학교박물관, 2008.
- 김영희, 「호남지방 鳥形土器의 성격」 『湖南考古學報』 44, 2013.
- 김용성, 「고분으로 본 신라의 장송의례와 그 변혁」 『중앙고고연구』 15, 2014.
- 김훈희, 「蕨手型 有刺利器의 變遷과 意味」 『한국고고학보』 81, 2011.
-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墓－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1981.
- 모기철, 「池山洞 44號古墳 出土 動物遺骸에 對한 考察」 『大伽倻古墳發掘調查報告書』, 高靈郡, 1979.
- 박중환, 「문헌자료를 통해 본 百濟 祭祀의 動物犧生」 『百濟論叢』 9, 2010.
- 박중환, 「백제지역 동물희생 관련 考古자료의 성격」 『百濟文化』 47, 2012.
- 신대곤, 「羽毛附冠飾의 始末」 『고고학지』 8, 1997.
- 尹瑞石, 「新羅時代 飲食의 研究－三國遺事를 中心으로 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創刊號, 1980.
- 윤선태,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 2018.
- 李盛周, 「貯藏祭祀와 盛饌祭祀－목과묘의 토기부장을 통해 본 음식물 봉헌과 그 의미」 『嶺南考古學』 70, 2014.
- 이상수, 「鳥靈信仰의 流入과 展開」 『영혼의 전달자－새, 풍요, 숭배』, 국립김해 박물관, 2004.
- 이용현, 「안압지 목간과 동궁(東宮) 주변」 『역사와 현실』 65, 2007.
- 이용현, 「안압지와 東宮 庖典」 『新羅文物研究』 1, 國立慶州博物館, 2007.
- 이용현, 「배산성지 출토 목간과 신라 사회」 『釜山 금석문-역사를 새겨 남기다』, 부산시립박물관, 2018.
- 이장웅,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變化와 國家祭祀」 『新羅史學報』 38, 2016.

- 李俊貞, 「한반도 선사·고대 動物 飼育의 역사와 그 의미」 『농업의 고고학』, 사회평론, 2013.
- 이준정, 「꿩 대신 닭? - 고분 부장 동물유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考古學으로 본 古朝鮮(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韓國考古學會, 2017.
- 장인성, 「고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백제 원지」 『百濟文化』 56, 2017.
- 조태섭, 「청주 봉산리 삼국시대 토광묘 출토 꿩뼈의 연구」 『고고학』 16-2, 2017.
- 趙現鍾, 「鳥形木製品과 農耕儀禮」 『全南史學』 19, 2002.
- 崔榮柱, 「鳥足文土器의 變遷樣相」 『韓國上古史學報』 55, 2007.
- 한정호, 「百濟 절터 出土 壁畫片과 法隆寺 玉蟲廚子」 『石堂論叢』 60, 2014.
- 홍보식, 「신라·가야지역 象形土器의 변화와 의미」 『韓國上古史學報』 90, 2015.

Abstract

## Changes in the Idea of Korean Ancient Birds —From the Holy Bird to the Reality Bird

Lee, Jang-woong

In ancient Korean myths and rituals, birds were regarded as very sacred, symbolizing the sun, mediating heaven and earth, connecting with ancestral gods. So it was used in funerals to mediate the world and the next world, or used in farming rites as a medium for calling out gods of grain.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esearches on birds that show such sanctity, the birds that appear in the records as a sign of good or bad, and the birds that appear as food materials as targets for hunting and management, respectively, have been studied partially. In this article wanted to collect relevant literature materials and examine the flow in a comprehensive way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in new ideas over time.

Especially, noting that duck-shaped earthenware made in Yeongnam region and bird-shaped earthenware made in Honam region, had declined during the 5th and 6th centuries, the Idea of birds that was considered sacred in mythology and ritual ceremonies would have changed. In actual literature, white pheasants and sparrows began to take shape rather than abstract mythological ideas after this period, as they were regarded as a marvelous one supporting the monarchy or as a sign of good or bad. And gradually the bird is recognized as a strange animal rather than a divine one,

so it is managed in gardens and its meaning as a hunting object or food seems to be gradually becoming stronger.

Key Words : The Idea of Birds, Duck-shaped Earthenware, Ceremonial Tool, Bird-shaped Earthenware, Myth, Ritual Ceremonies, Goguryeo, Baekje, Silla, Wooden Tablet

논문 투고일 : 2019. 02. 12  
게재 확정일 : 2019. 03. 18

심사 완료일 : 2019. 03. 15